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목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립에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3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 시비 논쟁

조계종 총무원이 해방이후 불교계와 관련한 재판 판례집을 묶어냈다. 모아진것만 약 300건을 엮어 그 작업량 자체로 방대하지만, 세간법에서 기려진 불교계관련 시비가 모아진 판례집이라 의미가 적지 않다. 부처님이 시비에 대해 언급한 경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마음에 망상과 분별을 일으키면, 내니 남이니 중생이니 목숨이니 하는 데에 집착하게 된다. 법(진리 혹은 교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데에도 집착하지 말라.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은것.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금강경〉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를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사람으로 아시오. 〈숫타니파타〉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내 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법구경〉

법(진리)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了義)에 의지하고 불요의에 의지하지 말라. 〈열반경〉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진흙에 더럽히지 않듯이, 보살은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의 일에 때묻지 않는다. 〈보적경 가섭품〉

불법(佛法)과 세간법은 결국 같은 것이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세간법은 불법에 들어오고 불법은 세간법에 들어간다. 이와같이 불법과 세간법을 서로 들어가면 서로 어지럽지 않으며, 세간법이 불법을 깨뜨릴 수도 없다. 진실한 지혜의 세계는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엄경〉

허망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있게 되고, 의혹 때문에 욕구되는 것이 있게되고, 그 욕구되는 것 때문에 원친(怨親)이 있게 된다. 저 원친 때문에 증애(憎愛)가 있게 되고, 증애 때문에 칼을 서로 잡고 맞선다든가 소송해 싸운다든가 다음에 참곡(讒曲)이 생긴다든가, 이런 가지가지의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제석소문경〉

다섯가지 역죄가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악행이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아라한을 죽이는 일, 교단의 화합을 깨어 분열시키는 일, 부처님 몸을 상하여 피를 나게 하는 일이다. 이런것을 오역이라 하고 이 죄를 지은 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대빙광십륜경〉

관련기사 3면

"초파일을 국민축제로"

봉축행사 '연등축제' 전환…인터넷 마당 개설

봉축위, 한달간 종로 · 인사동 '전통축제 거리' 지정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대법회와 제등행렬이 연등축제로 바뀌고,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서울 종로와 인사동 일대가 '전통축제의 거리'로 지정되어 다양한 봉축행사가 펼쳐진다.

봉축위원회(위원장 법타스님)는 지난 6일 부처님오신날을 단순한 불교인만의 자축행사가 아닌 일반시민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기위해 모든 봉축행사를 연등축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봉축위는 금년도 연등축제의 주제를 '계달음의 사회화'로 정하고, 봉축표어 공모에서 당선한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를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연등축제기간에는 봉축위가 직접 주관하는 법요식, 탑돌이 등의 대형행사와 신행단체, 지역연합회, 사찰이 주관하는 장애인행사, 불우이웃돕기, 군법당위문, 청소년음악회, 시낭송회 등 계달음의 사회화운동이 봉축행사로 전개될 전망이다. 봉축위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등(燈)은 단조로운 형식에서 탈피하여 행사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의 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며, '봉축등 선물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5월1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봉행되는 법요식 및 연등행렬은 전통축제의 거리에서 다채로운 회향행사를 펼쳐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연등축제의 정착을 위해 봉축위는 이미지 통일(EIP)을 위한 시각상징물을 개발하기로 하고 봉축 전용서체, 캐릭터, 색상을 개발해 휘장, 현수막, 깃발 등을 통일할 계획이다. 연등축제의 이미지 통일작업은 전국 20여개의 지역봉축위와 연대해 전개한다.

봉축위는 이와함께 PC통신은 물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연등축제를 세계에 소개할 예정이다.

봉축위 관계자는 "연등축제는 국가행사로 행해지던 연등회, 팔관회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으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불교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회가 지난 7일 통도사에서 열렸다. 이날 월하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무소유를 실천하는 각별한 수행정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첫 연수

여야중진에 교계입장 전달…강연 · 토론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통도사에서 의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종회활동의 활성화와 정책입안기능의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제11대 종회의원을 비롯 종무기관 간부스님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강연과 토의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에서 종회의원들은 7개 분과의 95년도 활동을 분석하고 96년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사원경제 활성화방안(김갑주교수 · 동국대 경주부총장)과 국회운영(이종률 국회사무총장)에 관한 강연을 청취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는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을 초청, 각 당의 종교정책을 듣고 불교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2면〉

北창구 단일화 합의

종교인협 '대화의 모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대화의 모임이 지난 5일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불교 기독교 등 50여명의 종교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북한 수재민 돕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민간교류 협력의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새싹불자의 입학식' 지난 4일 종립 은석초등학교(교장 김병호)1학년 200명이 새로 입학했다. 초등학교 명칭을 사용한 첫 해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이 학교 선생님과 부모 선배들로부터 축하를 받은뒤 합장으로 답하며 환하게 웃고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불교 판례집' 간행

해방이후 사찰행정 · 재산환수등 일목요연 정리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4일 해방후부터 지난해 까지의 불교관련 각종 판례를 모은 〈불교 판례집〉을 발간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정리된 이번 판례집은 총무원과 사찰에 소장된 판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법률정보시스템에서 불교관련 판례를 수집, 책으로 엮었다.

판례집은 해방이후 50년간의 불교관련판례 2백95건을 △사찰의 행정관계 △불교재산 소유권귀속과 망실재산 환수 △종단분규와 사찰 대표 · 임명권 △일상종무활동과 생활법률 △종교활동과 형사문제 △불교관련민사소송과 절차등 6장 32절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법률과 관련된 불교의 권리의식,자치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불교판례집〉간행에 대해 연기영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현대사회에서 포교와 도제양성을 하기위해서는 세간법을 피할 수 없다"며 "종교활동과 관련된 형사 민사 행정상 발생하는 법률적문제를 판례집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은 불교판례집에 이어 주요판례와 해설을 담은 '(가칭)종교의 자유와 불교법제'를 4월에 간행하며 판례집에 수록되지 못한 불교판례와 96년이후의 판례를 증보판으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별지부록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을해년 동안거 해제

태고종 혜초 총무원장 취임

20일 봉원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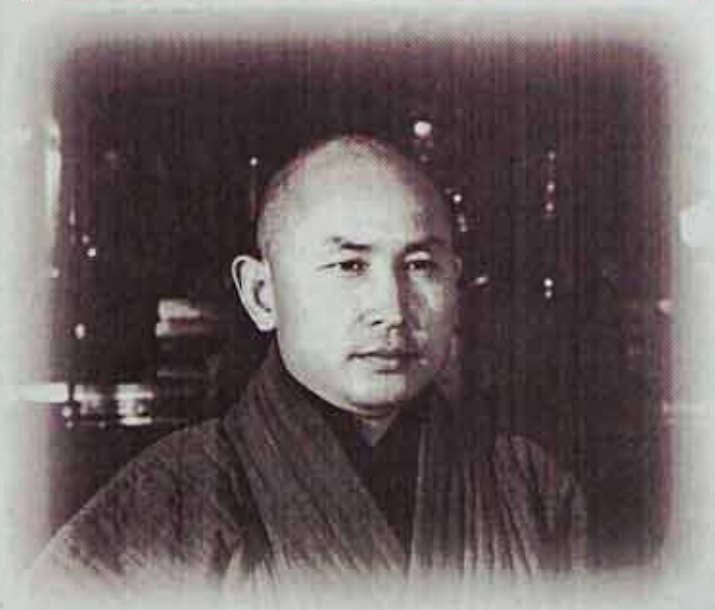
태고종은 오는 20일 오전11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제17대 총무원장 혜초스님 취임법회를 갖는다.

제17대 총무원장취임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인공 · 원법)는 지난 13일 총무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월 6일 72차 정기종회에서 선출된 혜초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한편 혜초스님은 지난 2월 23일 종단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기로하고 1차로 3천만원을 종단에 기부했다.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02-720-8014
보우국사 열반지 찾았다 6면
석정스님 佛門 60년 결산 7면
인도 힌두교도 불교귀의 '붐' 15면
해제 현장서 만난 두 스님 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證明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月下 大宗師
靈鷲山中 九龍吐水
석지형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민족평화통일 · 2002년 월드컵한국유치 · 불교중흥 기원 불교문화제전
영축산 통도사비구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포교 · 복지 · 장학불사의 후원을 위해 지난 한 겨울동안 한점한점 기도하며 밤새워 그려낸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 대법회 : 1996. 3. 21(목)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 · 2층 전시관
• 불교문화대강좌 : 3. 21 ~ 23 오전11시 (10층 대강당)
• 작 품 전 : 3. 21 ~ 3. 24 매일 오전10시~오후7시 (부산일보사 2층 전시관)
- 초 청 법 사 : 무진장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성암도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서윤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류시화 선생(시인)
- 불자연예인 공연 : 김흥국(불자가수회장), 두레 外
※ 기념품 증정 : 참석하신 불자님께 玉龍子석지형 스님이 그린 길상도가 새겨진 호신불 목걸이와 아름다운 길상도 엽서세트, 손염주등을 정성으로 전하여 드립니다.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금강불교아카데미 금강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1729 TEL:(051)621-8548~9 FAX:625-2741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 BBS 불교방송 · 불교텔레비전 32 서울소림불교아카데미총동문회 • 서울 소림불교 장학회 • 창원 구룡사신도회

사 설

조계종 종회의 대 도약

조계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종회 의원연수회가 열렸다. 이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한국불교와 종단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종단개혁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격심한 진통을 겪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개혁회의는 종단운영을 민주화하고 불교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주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의 행정과 사무체계가 독점·집중되어 많은 병폐가 발생했다는 인식속에서 중앙종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중이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종단구조로 제도화하였다.

여기서 중앙종회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단순한 종단의 입법기관의 지위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대중의 대표기관으로서 불교발전을 이끌어야 할 소명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종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효율화를 목표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수회는 바로 이러한 중앙종회의 역할과 사명을 새삼 다짐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창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수회의 성과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참회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다짐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의 중앙종회활동을 정리 평가하고 올해의 과제를 다각적으로 설정해 보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전문가로부터 국가입법부인 국회의 운영실태를 들어보고 종회 운영의 합리화·체계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물론 이해타산적인 국가권력과 세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조직은 부처님의 법인 출세간법에 의해 지배되는 종단조직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현실적인 틀속에서 조직원리가 유사성 동질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각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을 초청하여 종교관련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이나 종교의 순수성을 내세워 이러한 정책토론회가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릴 위험성과 지나친 현실참여를 걱정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 우리가 살고있는 역사 사회속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현실적인 정치 경제 사회에 무관할 수만은 없다. 특히 정치가 우리의 부엌살림까지 파고들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현정권의 각종 파행적인 종교 편향정책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온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땅히 비과세되어야 할 사찰땅에 엄청난 종토세 토초세가 부과되었다가 철회된 적도 있다. 대통령의 국방부예배사건을 비롯하여 특정종교를 위한 교과서제작 배포 및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추진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교불평등 정책을 보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국가정책이 종단활동과 불교발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가를 체험하고 있다.

셋째, 사원경제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있었던 것은 '생산불교'와 '깨달음의 사회화'를 내세우고 있는 개혁종단의 실천과제를 점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은 산업사회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다. 종단의 물적토대인 재정의 합리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대적인 경영기법과 경영진단을 통해 재무구조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회의 위와같은 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업서버 조차로도 재가불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사부대중이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부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열린마당

여야 불교관련 정책

조계종 종단사상 최초로 중앙종회의원 연수회가 7~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4당 정책위의장이 불교관련 정책의 방향과 관계 법령에 대해 밝혀 주목을 끌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정교분리 준수 '종교상호 이해기반' 조성

나 오 연 〈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

종교재산의 보호를 통한 종교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종교간 차별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종교자유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다.

그리고 종교간 화합과 자정노력을 지원해 건전한 신앙생활 풍토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책자발간 학술행사 개최 등 종교간 상호이해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종교를 빙자한 유사종교의 반사회적 활동을 규제한다.

특히 종교가 건강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교계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종교계의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도덕성 회복운동, 환경보호운동 등 국민의식운동도 확산및 유도한다.

불교관련 법령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불교계가 의견을 집약해 개정안을 제출하면 협의 검토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관련 불교계의 주요 관심사항인 ▲국립공원지정 및 국립공원계획시 구역내 사찰 소속종단 대표자와 사전협의 ▲자연공원내의 종교시설에 종교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불자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 ▲국립공원위원회에 불교계 위원수 증원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내용의 법령에 명문화 ▲공원입장료 수입의 30%를 사찰에 지급토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 등을 검토한다.

성보 박물관지원·군종정책 형평 유지

손 세 일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종교단체는 각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에 입각해 인권보호와 사회봉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는 종교마다 공통된 현상이며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종교시설이 유아교육과 성인교육등 교육시설로도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재정지원이 따라야한다.

한편 전통문화 유산을 지켜온 불교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불교계의 일일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중대사이다. 따라서 성보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지원 1/3 지방자치단체 1/3 당해사찰 1/3씩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불교종합병원 설립 문제는 불교계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인사, 군종 정책 : 정부부처 인사에서 나타난 지역 계층 종교 편중현상을 근본적으로 지양해야한다. 군종정책이 형평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며 군종장교의 균형있는 수급을 위해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

불교관련 법령 : 종교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종교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모든 종교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종교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차별없이 보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종교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종교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각 종교 특수성 중시 '종교법인법' 제정

서 경 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건전한 종교문화의 발전을 위해 종교단체의 공익성, 공공성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단계에 와있다. 이에 부합되는 사회 경제적인 권리주체로서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종교법인법은 또한 모든 종교가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면서도 각 종교가 갖는 특수성이 무시되어서도 안되는 만큼 매우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종교단체의 이해관계인, 종교법관계 전문학자, 종교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구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교관련 법령 : 전통사찰보존법전통사찰 지정 및 각종 처분은 불교계 인사가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한다. 한편 공원관계법령은 사찰이 고유한 종교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내에 종교시설지구를 지정해 해당종교단체의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관장토록한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상에 특별지구를 설정하는등 입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한편 도시계획법은 문화시설에 대해 보존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종교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사찰 및 그 부대시설의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때는 보존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시설을 제한해야한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않는 데 있다.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전통사찰의 토지를 유휴지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공원수익금 배분등 사찰자율권 보장

박 구 일 〈자민련 정책위 의장〉

불교에 관한 정책은 타 종교에 비해 편향적이라는 입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다종교 현실에서 종교간의 균형성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정비, 지방세법의 수정보완 사찰의 자율권 확보 및 불교문화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이 기본적 선결조건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민족문화의 보전과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담고 갈 문화재 보존에 두어야한다. 민족문화재의 훼손과 유실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한다.

불교관련 법령 : 전통사찰보존법은 정부의 불교재산 몰이해가 잘 드러나 있다. 개선책으로는 경내지의 범위를 과세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여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한편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수익용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사찰소유의 임대농지에 대한 과세 역시 점진적 완화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관리법에서 주의해야 할 관점은 공원내의 사찰 자율권 확보 문제이다. 사찰 자율권 확보는 법률개정을 통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찰 스스로 자율권 확보를 위한 의지와 인식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인사구성을 비롯해 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문제 및 수익금 배분 등 불교계가 요구하는 사안을 충분히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대만평

박 구 원



우리와 가까운…

목어

국적불명 신세대 명절

2월14일 발렌타인데이, 3월14일 화이트데이, 4월14일 블랙데이. 청소년 또는 신세대들이 새 명절로 챙기는 날들이다.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고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라나. 그럼 블랙데이는? 이날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아무것도 못받은 '광맨' '광우먼'들이 검은 옷으로 차려입고 시커먼 자장면을 먹거나 블랙커피단 마시는 날이라고 한다.

이 무슨 국적불명의 해괴한 날들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2월과 3월이면 초콜릿·사탕장수들은 대목을 노려 온갖 상술을 다 동원한다. 1백화점의 경우 하루평균 초콜릿 판매액은 20~30만원선. 발렌타인데이에는 한 매장에서만 8~9백만원 정도로 매상이 경충 뛴다는 보도가 있었다.

발렌타인데이는 가톨릭의 순교사제 발렌티노를 기리는 축일과 연관있다는 설이 있다. 연인들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발렌티노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으나 사랑고백, 초콜릿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 받게 된 것은 10여년전 일본의 한 초콜릿회사의 착상에서 시작됐다니 무분별한 외래문화 수용이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

"미국서는 발렌타인데이에 조용히 지내요. 평소 좋아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사탕·초콜릿 등을 보내지만 그 대상은 꼭 연인만이 아니라 부모·직장동료·친구일 수도 있어요.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하죠" 한 미국인은 한국에 와서 '화이트데이'나 '블랙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말한다.

신세대는 명절도 외제를 선호하는가. 각성할 일이다. 우리의 단오·유두·칠석 등 민속절을 청소년 축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견우 엿·직녀 사탕·오작교 떡·춘향과 이도령 한과는 어떤가.

불교청소년의 해를 선포한 조계종이 각계 청소년 관계인들과 연계해서 우리의 새싹과 젊은이들에게 '우리 얼'을 심어주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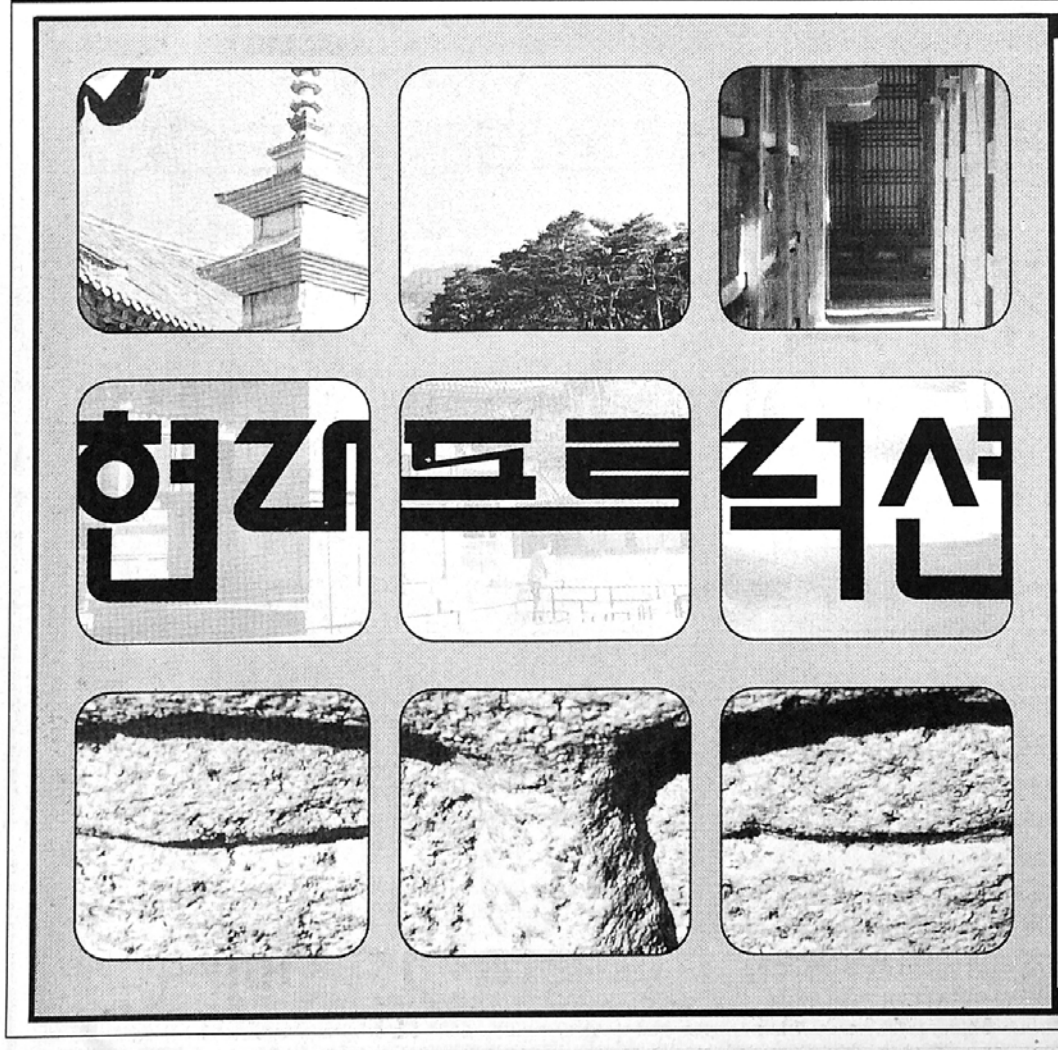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이긴 사람은 더욱 미움을 사고
진 사람은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기고 지는 것을 함께 버리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으리.

〈잡아함경〉

협찬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명 우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불이익 예방·정재유실 각성 '계기'

조계종 '불교판례집' 발간 의의

해방후 50년간 방치자료 체계 정리
사찰서 행정·재무등 활용가치 높아

스님의 법적수명과 수입은 얼마일까?

서울민사지방법원은 94년 화가이자 납골당을 운영하던 모사찰 주지스님이 교통사고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님의 수명을 70세, 월수입을 1백25만7천7백59원(종교관계 종사자로서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으로 인정하고 배상액을 평가했다. 또한 "사찰주지의 납골당 운영은 주지 및 장의업자로서의 수입원과 독립된 별개의 수입원을 이루는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미술가로서의 활동도 주업인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범위내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불교판례집〉은 이처럼 종교활동과 관련,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률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다.

첫째로 불교자료의 정리이다. 이번 〈불교판례집〉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종단의 자료가 처음으로 정리되어 종단과 사찰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될수 있다는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서관리에 대한 무감각속에서 해방이후 50년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가공해 일반에 선보인 것은 종단자료를 종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유통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둘째는 판례를 통해 현대 한국불교사를 볼수 있다는 점이다. 판례집에 나타난 사례를 시기별로 나누어 볼 때 몇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방직후인 50년대는 불재법과 관련한 위헌여부의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60년 대법원은 "일제때부터 내려오던 사찰령을 대한민국 헌법공포, 시행후에도 헌법정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불교재산관리법이 재정되는 과정에서 사찰령의 독소조항이 잔존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50년대에 이어 60년대는 조, 태분규에 따른 주지대표권, 사찰등록과 관련한 소송으로 유달리 재판이 많았던 시기로 보인다. 특히 판례집에는 이 시기에 불교재산과 관련한 판례가 많아 당시 정재가 망실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종권이 안정되면서 일상종무활동과 관련된 선진적인 판례기 두드러져 사찰 자치권 권리확보와 불교의 대사회적역할을 엿볼수 있다. 대표적인 관례로는 1994년 전통사찰 봉은사가 낸 사찰환경권침해 소송. 1995년 서울지법은 "전통사찰인 봉은사와 1백m 떨어져 87m 높이의 고층건물을 지음으로써 사찰이 입게될 경관적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침해는 그 피해의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고 지속적이므로 명백히 부당하여 환경이익침해방지청구권에 기하여 이 건축공사의 금지청구권을갖는다"는 유명한 판례를 남겼다.

이번 판례집에서 눈길을 끄는 판례로는 1972년 대법원이 한국불교의 진흥과 승풍진작, 청정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종단 조계종의 합법성과 공식성을 천명한 사법판결을 내려 비구, 대처분쟁이 법률적으로 완결됐으나 아직도 분규사찰이 남아있어 실제로는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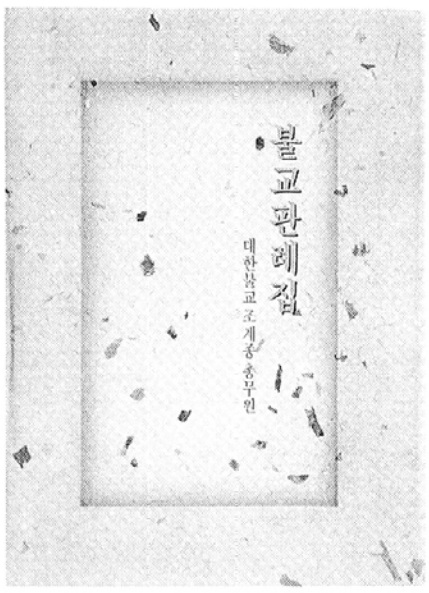
1974년 용태영변호사가 청구한 석탄일 공휴권 지정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에서 기각했으나 이 소송을 통한 불교계와 시민의 관심집중으로 다음해에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해 의의가 깊은 판례로 남아있다. 판례집에 가장 많은 판례가 수록된 사찰은 속초 보광사로 사찰의 대표권, 종단등록, 상속, 토지소유권, 증여뿐 아니라 형사소송등 9개의 판례가 수록되어있어 불교관련 판례의 모든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밖에도 판례집에는 '타종교를 믿는 처를 두고 승려가 된 것이 악의의 유기인지여부' '신도들의 시주로 형성된 불교재산이 신도들의 합유인지여부' '불상을 절도했을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주지취임을 위한 불법점유의 배제와 주거침입죄 성부' 등의 판례도 실고있다.

이번 판례집 발간에 자문으로 참여한 양영태변호사는 "판례가 확립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며 "불교계 소송의 유형은 정형화 되어있어 판례를 숙지하면 종도의 권리보호와 재산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변호사는 또한 "최근 법원도 종단내부의 문제는 자체해결을 유도하는 경향이다"며 "불교내부의 문제를 세간법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종헌종법에 따라 해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조계종 총무원은 해방이후 50년간의 불교관련 판례를 모아 책으로 간행했다.

포교환경 쇄신·제도보장 '의지'

조계종 '본말사 포교규정' 추진 배경

포교지침 구체화…공포땐 종령 효력
교구본사·주요사찰 협조가 성공관건

초안 주요내용
- 포교예산 15% 편성
- 상임포교사 배치 의무화
- 포교국장 임기 보장
- 재가신도 조직 구성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교구본사의 예산편성시 15% 이상을 포교예산으로 책정하고 상임포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본말사 포교규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교원은 지난 5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 '포교규정'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4월 중순 '포교규정'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포교규정' 제정과 관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포교를 위한 본말사의 포교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포교법에 명시된 포교지침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포교규정은 포교법 제19조에 의거해 종령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이 마련한 '포교규정' 초안에는 ▲정기법회 및 계층별 법회의 개설 ▲재가신도 교육과정 운영 및 재가신도 조직구성 ▲복지·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포교사 지단의 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포교국장 임기보장(4년) ▲본사 예산액의 15% 이상을 포교예산으로 책정토록 했다. 이 수치는 조계종 전체 예산 가운데 15%가 포교원 예산으로 책정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구본사 중심의 포교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됐던 포교국장의 임기불안정, 예산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함께 초안에는 "규정에 제시한 의무조항 시행여부를 평가해 주지 인사에 반영하도록 인사권자에게 건의한다"고 밝혀 강력한 실천의지를 명시했다.

초안의 골자는 일선포교사들의 의욕을 뒷받침할 포교환경의 제도적 보장으로 요약된다. 포교가 역점사업으로 누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중장기적인 포교정책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포교원이 단지 지원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포교정책의 수립과 함께 일선포교를 선도하는 종무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헌·종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시행치 않아 유명무실하게 된 전례에 비추어 이 규정을 통해 얼마나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실제 95년도 예산액이 7억원 이상인 주요사찰 5곳 가운데 포교비는 전체예산의 평균 3.7%에 머물렀다.

한편 상임포교사 배치는 이미 몇몇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어 이 제도는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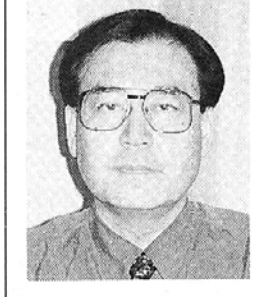
종교와 정치의 분리

최근 선거국면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정치와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종교단체가 학연, 지연대신에 4·11총선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가장 눈독들이는 황금표밭의 구심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특정종교 편향의 제도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데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의 특정 종교가 사회적 이해관계에 깊숙히 자리잡음으로써 야기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가 양성하는 종교인

예컨대, 이미 발표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도는 기독교 신학을 중심으로 교육안의 틀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종교적 편향을 노출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첫번째의 것은, 정부주도의 교육으로 성직자를 양성하겠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신학과 서구식 교육안을 근거로 성직자 교육제도의 틀을 구축한 점이다. 종교간에 성직자 배출과 교육방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방식의 종교교육에 맞추라는 것은 특정 종교 편향 정책에 다름 아니다.



김 진 철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러한 사실들은 종교가 정치적 충원과 직접 관련이 없던 과거와는 달리 현정권이 종교를 정치구조에 깊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결국 현 정부의 정책운용과 권력행사방식이 종교적 편향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종교간 마찰은 물론 국민의 감정까지도 자극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또 다른 편향적 제도화는 '기독교 정당론'이다. 이 주창자들은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원론적 수준에서 유럽의 기독교 정당사를 거론한다. 기독교 정당은 교리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혁명이나 사회주의 운동, 1870년대 소독일통일 등 기독교 문화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세속의 권위에 눌릴 때 기독교 정당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정당은 개혁적이며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과 질적 개선의 요구, 정치권력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이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극단적인 견해로, 기독교인의 일반정당참여나 시민운동으로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기독교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정당론'은 정복의 종교, 지배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교회와 기독교 정당이 일치할 수 없다는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종교 사회인 우리의 정치문화적 특성도 배제하고 있다. 다종교에서 유일신으로의 통합과 정복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였음을 '세계관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정당론'은 종교적 지배와 정복을 새로운 원리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종교적 다원사회인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를 새로운 지배의 문화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극심한 지역주의에 종교갈등까지 야기시켜 사회를 더욱 혼란시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지만 문제는 현 정부가 종교적 편향을 초기부터 보여왔다는 데에 있다. 이것이 어떠한 위기상태를 몰고 올 지는 명약관화하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비판을 받은 것은 종교의 정치적 관계 안에서의 기능 때문이었다. 참다운 인간의 해방을 위해 정치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를 종교적으로 역이용하여 종교인의 배를 채웠으며 그 결과로 인간을 억압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지배는 지배의 종교였던 것이다. 왕좌의 제단, 돈과 성직자의 밀접한 연결은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었다. 권력과 종교가 손잡고 재산과 성직자들이 한 묶음 속에서 뒹굴었던 것이, 그리고 그것의 말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세계관의 역사가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 권력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종교를 필요로 했다. 권력의 정당성을 종교의 교리로 대체했고, 이 속에서 인간의 종교적 자유는 유린되기 일쑤였다.

근원적인 치유책 찾아야

우리는 현국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종교적 편향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항속적 방지책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만약 통수권자의 과잉영향과 관료적 편견이 여기에 발견된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정치와 종교는 사회적 역할에서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종교는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정치행태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정치에의 직접참여는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한다. 더욱이 특정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폐단은 한국의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종교상의 국민감정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런 감정적, 정서적인 종교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 창업 축

"행함이 없는 공부,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는
생명이 없는 지식을 쌓는 데 불과하다.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가령 올챙이가 개구리에게 흙냄새에 대해 물었을 때
개구리가 수천 마디의 말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챙이가 개구리 되어
뭍에 올라가 보는 경우만 못한 것이다."

商號: 靑業建設株式會社
社長: 代表理事 明乙植
所在地: 서울特別市 江南區 道谷洞 419番地 靑松빌딩 301號
電話: (02)576-9271 FAX: 576-9270
設立日時: 1995. 10. 25
資本金: 一金 一億吾百萬원整
保有免許: 設備工事場 (95 서울1234號)
營業種目: 綜合프랜트의 機械 配管 設置 및 保溫保冷工事
精油 및 石油化學設備部門
보일러 및 發電設備部門
製鐵 시멘트 設備
環境設備 및 食品加工設備
各種 탱크 및 GAS HOLDER 設備
冷暖房 衛生 空造設備

법회 안내

원각사(0392)33-062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대불학생회 매주 목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월 오후7시
달마회 매월 14, 24일 오후7시
금강회 매월 10일 오후7시
거사림회 매주 둘째 수 오후7시
군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금요법회 매주 금 오후7시

내원정사(051)242-0691

약사재일 매월 8일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1일 오전10시
청년학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해동용궁사(051)722-7744

성지순례방생 5일(음)오전10시
회엄신장기도 9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감로사(051)809-0926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안등기도 매월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보현사(053)254-6966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7시30분
관음재일 오는 13일 오전10시

대구구도회(053)654-8533

경전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금요강좌 매주 금 오후7시
좌선정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어린이, 중등법회 일 오전10시
해인사 지족암 철야정진법회
매월 넷째주 토 오전10시

상원사(0374)32-666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24일 오전11시

낙산사 포교당(0396)671-4167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일반신도, 군인법회 일 오전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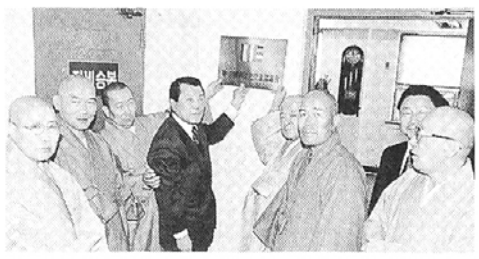
삼장사(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불학생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8시
천수경, 예불문강의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법회 후
지장재일, 안전운행기도 매월18일(음)부터 7일간

여의도포교원(02)784-9136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경전공부 목·일 오전10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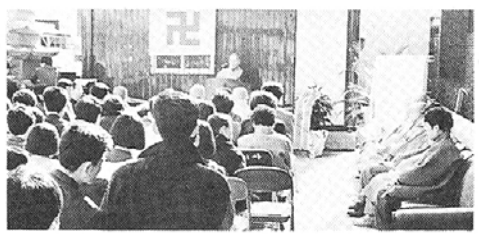
한·일불교문화교류협 현판식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 5일 사무실(종로구 견지동 수성빌딩 202호)을 개설하고 현판식 및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상임고문 이법홍(원효종종정), 법인이사장에 이홍파(관음종 총무원장)을 선임하고 상임이사 3명을 영입했다. 또 이달중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02)720-1708



동국대 학술문화관 준공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4일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이사장 녹원스님, 총동창회장 황명수의원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2층 지상3층의 동국학술문화관을 준공했다. 동국학술문화관은 2백평규모의 법당, 5백석규모의 중극장, 소극장, 세미나실, 식당, 강의실 29실, 실기실 19실, 교수실 7실 등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을 고루 갖췄다.



청교련 부여지회 현판식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부여지회(지회장 정민스님)는 지난 1일 부여읍 불교문화원에서 '부여지회 현판식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원식'을 거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보성(고란사 주지), 지강(부여사암연합회장) 호나성(여평사 주지)스님을 비롯 조성룡씨(신도연합회 회장)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항 학산사회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은 학산사회복지관(관장 난승)이 지난 5일 개관됐다.

복지관은 대지 6백평, 건물 3백65평의 규모로 노인정, 무료치료실, 탁아소,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설조스님(불국사 주지), 향공스님(포항사암연 회장), 박기환 포항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초파일 '통일 공동축원문' 채택 기대

북경 남북종교인회의 참석 성타스님



"자주 만나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누가 회의를 여느냐에 개의치 말고 만남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달 26~29일 북경에서 열렸던 남북종교인회의에 불교대표로 참석했던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만남의 성과를 논하기보다는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시급한 남북불교교류의 과제라고 밝혔다.

성타스님은 "북한에 불교가 있다해도 정치적인 불교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보니 그들의 내면에도 불교적 심성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며 한국불교를 북한에 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타스님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황병대 부위원장에게 △광화통일 기원법회의 공통개최 △부처님오신날 공동축원문을 채택하자는 조계종의 뜻을 전달했으며, 황부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올해 부처님 오신날에는 남북이 함께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공동축원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운 기자

"5계 생활화…화재·도난사고 안겪어"

정부청사 38년지킨 안정오 거사



정부종합청사 방호실장 안정오거사(67). '광화문 수문장'으로 38년을 한결같이 종합청사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자랑스런 불자다.

58년 공직생활을 시작, 67년부터 지금까지 방호실장으로 일해왔다. 그가 방호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종합청사에 화재나 도난사고 한번 없었다.

이 공로로 73년에는 모범공무원 표창, 지난 4일에는 퇴직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날 오전8시40분 출근하는 이수성국무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근무를 마감했다.

"5계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은 없어요. 하는 일만 달라졌을 뿐 삶의 본질은 그대로지요."

가족 모두가 도선사에 다니는 돈독한 불자가정을 이루고 있는 안거사는 그래도 "절에 자주 가 부처님께 참배해야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워 항상 죄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지요"라며 두손을 모은다.

"다리를 다친 아내가 완쾌되면 함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운〉

교차로

한·캄보디아 불교교류협의



설조스님(조계종 제11교구 불국사 주지)은 한·캄보디아 불교문화교류협의차 지난 8일 캄보디아로 출국 13일 귀국했다.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영담스님(덕유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1일 덕유마을 아파트 놀이터에서 덕유마을 주민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큰마당 잔치를 벌였다.

매주 수요일 '장자' 강의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는 오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장자〉에 대해 강의한다. 또 진성규교수(중앙대)는 매주 금요일 〈대학〉에 대해 논한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추대



성오스님(범어사 주지)은 지난 6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이사회에서 同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극단 동쪽나라 3·1만세 재현

극단 동쪽나라(대표 김형균)는 지난 1일 파고다공원에서 3·1만세운동 어린이 재현행사인 '높이 솟아라, 겨레의 얼'행사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어린이들이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서사극형식으로 펼쳐졌다. 이날 3·1만세운동 재현에서는 참가자 모두 태극기를 들고 만세합창을 하며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동학사 승가대 졸업식 봉행



일연스님(동학사 승가대학장)은 지난 12일 동학사 승가대학 강설전에서 제33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강원도 6개시 순회강연



백운스님(강원불교대학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동해 강릉 등 6개도시에서 봄철 순회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선거감시 연대회의 공동대표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는 지난 7일 발족한 '선거보도감시 연대회의'의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오는 4·11총선까지 언론공정 보도감시활동을 펼친다.

계룡대 호국사서 이임법회

김홍래장군(공군 참모총장)이 지난 3일 계룡대 호국사에서 승찬스님, 월주스님, 육군·해군 참모총장, 불자장성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법회를 가졌다.

교통방송 시청자 좋장 맡아

강영숙씨(예지원 원장)는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통방송 시청자위원회에서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구불교산악회 1돌법회

김장근회장(대구불교산악회)은 10일 창립 1주년을 맞아 보현사법당에서 기념법회를 가졌으며 양식집 꼬마도깨비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호프집 행사도 개최했다.

케이블TV 1주년기념 수상



김종현씨(불교TV 제작부장·사진위)와 손정욱씨(불교TV 마케팅부차장)는 지난 5일 하이얏트호텔서 열린 제1회 케이블TV의 날 기념식에서 유선방송위원장상과 공보처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뮤지컬대상서 여우주연상



김성녀씨(배우)는 지난달 28일 극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제2회 뮤지컬 대상에서 뮤지컬 '7인의 신부(신시뮤지컬컴퍼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인사

조계종 △총무원 재정국장 법일스님

동국대 △교육대학원장 오국근 △지역개발대학원장 김희오 △불교문화대학장 최창식 △법정대학장 김선정 △상경대학장 최상영 △2부대학장 김영재 △사회교육원장 정병조 △기숙사감 이법산 △대학원교학부장 박거덕 △경주 금장생활관장 김동협 △경주 교육방송국장 우성기

위덕대 △교학처장 김무생 △사무처장 배도순 △교학과장 류권열 △기획홍보담당관 박희택 △총무과장 엄해식 △시설과장 홍정표 △공사감독관 신인휴

게시판

▲문화유산답사=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오는 16일 알려진 도솔산 선운산 일대로 문화유산답사를 떠난다.(02)760-5138

▲유아교육 정교사초빙=구립 절고개 어린이집이 유아교육 2급 정교사를 초빙한다. (02)813-8842

▲무료한글교실=우산종합사회복지관이 매주 월,수, 금요일 오전11시부터 1시간씩 무료한글교실을 개최한다. (062)266-3853

▲자원봉사자 교육=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서울·대구·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불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20일. (02)723-5101

▲수화찬불가 발표회=(재)일념장학회(회장 양선법장)는 제1회 수화찬불가 발표회를 오는 16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051)464-2020

▲내소사서 철야구도법회=조계사대승불자회(회장 이엽기)는 16, 17일 선운사, 내소사에서 철야구도법회 및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02)736-4848

▲불교미술대학 신입생 모집=(사)대한생활불교회(이사장 김덕수)는 부설 선문화불교미술대학(학장 윤일호)을 설립, 전문과정(2년)과 연수과정(1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 수료자는 국가인정 문화재보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042)531-9542~3

이전 책방 정신세계사=명상·수행관련 전문서적인 책방 정신세계가 최근 교보문고 뒤편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02)737-8115

선우도량=장충동2가에서 종로구 계동 15-14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42-6916~7

대한불교 청년회 부설

만해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 청년 지도자 양성

본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 자주 독립 정신과 불교 개혁 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미래의 한국 불교와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불교경전과 교리 및 환경·통일·노동·청소년·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여 불교중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1 학과목

1학기 과목	교 수	2학기 과목
불교학개론	차차석	불교사(교리발달사)
종교와 사회(비교종교학)	송위지	현대사회와 불교(환경·통일·복지)
경전강의(반야심경)	법륜스님	청년지도자론(포교방법·청년조직)
불교사상론(근현대사상과 정신)	백남석	경전강의

2 모집인원
정규반 50명 (출석수업)/통신반 약간명(지방거주자)

3 지원자격
(1)불교에 관심 있는 청년불자
(2)현재 대한불교청년회 수속 각 청년회 회원

4 특전
(1)본 대학 이수자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 자격 부여
(2)국가 공인 청소년 지도사(1·2·3급) 응시 자격 우선 부여
(3)각 청년회 지도자로 육성

5 강의시간
(1)개강:3월21일(목요일)오후 7:00
(2)강의시간:매주 월·목 오후 7시 20분 - 9시 30분(2시간)
(3)기간:①1학기: 3월21일~6월27일
②2학기:8월22일~11월28일
③숙박 연수교육:8월중(2박 3일)

6 교수 소개
차차석:철학 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강사
송위지: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수
법륜스님:한국불교 환경교육원 원장, 한국불교사회 연구소 이사장
백남석: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7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신문사·법보신문사·주간불교신문사·현대불교신문사

8 접수 및 문의처
(1)만해대학 교학처: 전화 (02)738-3386~7
팩스 (02)735-2707
(2)우편접수:서울 종로구 청진동 286-1지장빌딩 4층 만해 교육원

만해 대학 : 학장 강석주·대한불교청년회 : 회장 이상번

1억3천만원

불교문학 현상공모

'96문학의해'를 맞이하여 문학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정서함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족문학이 담고 있는 민족정신과 긍지를 오늘에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교정신과 민족적 정서를 조화시켜 문학적으로 승화시켜온 불교문학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현상공모 하고자 한다.

현상공모 운영요강

· 공모부분
[소설] 장편소설(당선작:5,000만원) [시] (당선작:700만원)
중·단편소설(당선작:1,500만원) 분량:10편~20편
[시조] (당선작:700만원) [희곡] (당선작:1,500만원)
분량:10편20편 [시나리오] (당선작:1,500만원)
[동화] (당선작:700만원) [평론] (당선작:1,500만원)
· 당선작이 없을 경우는 '가작'으로 하며 가작 상금은 당선작 상금의 반으로 한다.

· 공모자격
기성작가 및 신인

· 공모기간
1996년 3월 1일 동년 10월 30일

· 접수및 문의 접수 : 불교문학현상공모 운영위원회
110 - 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의 : 총무원 문화사회부 (02)737- 9684

· 응모요령 불교관련 소재로 하여 문학적으로 작품구성 불교사상 또는 불교정신을 작품에 반영하여 문학적으로 구성 기타 불교적인 내용을 문학적, 미학적으로 구성

· 응모시 유의사항
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명기(필명 동시기재 요망)
응모된 모든 원고는 반환치 않음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은 본 종단이 30개월간 소유.
신작에 한해 응모 가능하며 표절 등의 경우는 당선 취소

· 심사발표 및 발표방법
· 발표: 1996년 11월 30일 불교신문 게재 (12, 10일자)
개별통보 및 총무원 3층 게시판 공고

· 당선작 특전
· 교계 및 일간신문 연재 또는 게재 예정
· 책자 간행 예정
· TV 드라마 및 영화제작 추진예정

불교문학현상공모 운영위원회 고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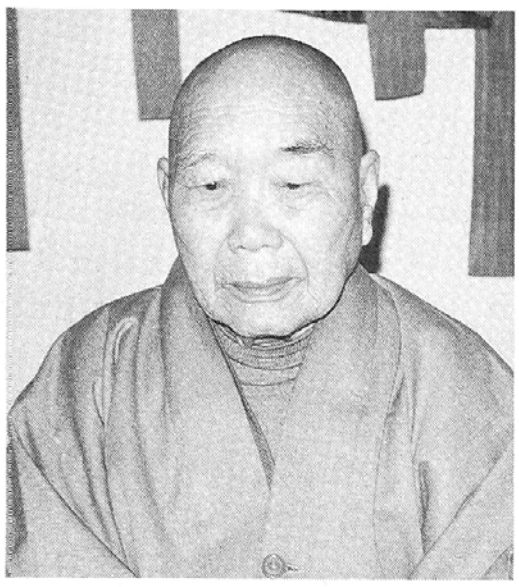
해제현장서 만난 두 스님

지난 4일 불기 2539년 을해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의 선원에서 용맹정진해온 납자들이 만행의 길에 나섰다. 조계종 해인사 수덕사 통도사 송광사 등 4대 총림을 비롯한 선원에서는 이날 오전 일제히 해제 법요식을 갖고 방장, 조실스님의 해제법문이 있었으며, 3개월간 정진해온 공부를 점검받았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조계종 전국 64개 선원에서 총 1754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한국불교의 국제포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공주 신원사 국제선원에서 외국인 스님들 20여명도 안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동안거 기간중 최고령으로 정진한 운거스님(91세·용주사)과 미국인 도문스님(46세·신원사 국제선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스님네 할일이 수행 아니던가"

91세 최고령 안거수행 운거스님



"늙은이가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한다고 먼 길을 찾아와.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와."

문득 조주스님의 끽다거(喫茶去)가 떠올랐다. 찾아와 도를 묻는 이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나 한잔 마시게' 했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용주사의 운거스님. 세납 91세도 놀랍지만,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번 동안거는 물론 출가 이후 안거를 한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나이탓에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 하루 네차례 참선에 꼬박 참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방부를 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만은 철저히 지켰다.

"스님네 할 일이 수행 아니던가. 소임보는 스님네야 수좌들 뒷바라지하니 빈틈이 있겠지만, 소임도 넓게 보면 수행이지. 나야 소임이 있나, 젊은 사람들처럼 바쁜 일이 있겠나. 가만 있으면 병들어오는 것이 몸의 이치,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좋아한거지."

운거스님은 51세의 나이로 늦깎이 출가했다. 속가형님의 반대가 워낙 컸었다. '송장살이 몇번인데 또 한평생 닦지 않나. 헛된 이 몸 죽은 뒤에 다음 생을 어이 하나. 생각할수록 급하구나.'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의 경책을 듣고 퍼뜩 해인사의 인곡스님을 찾아가 출가를 결행했다.

"깨달음에 매달리기보다 바른생각·말·행동 위한 공부를"

이후 지리산 정각사, 오대산 상원사, 인천 용화사 등의 선방을 찾아 30여년 동안 깨달음을 구했다. 이곳 용주사에 주석하기는 8년째다.

이번 안거 동안의 화두는 전강스님으로부터 받은 '이 뭣고'. '이 뭣고'는 전등록5권 남악회양장에서 유래한다. 육조스님이 남악회양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다시 육조스님이 물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즉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라는 화두이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를 찾는 수행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좌를 틀고 꼼짝 않고 앉아있어야 하니 안해본 사람은 괴로울테지. 그러나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있나. 내가 어디서 왔고, 올바른 마음을 구하자는 것인데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분발심을 내야지. 그러면 마음도 행동도 달라질거야."

시종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카부좌를 튼 노비구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으로 들린다.

—깨달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들어오라 했더니 왜 어려운 얘기를 꺼내. 사람들은 깨달음이 무엇이냐에만 매달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

한 종교학자는 "미래의 종교로 남아 계속 세인들에게 감화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종교는 불교 뿐"이라고 전망했다. 여름과 겨울 철두철미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불교의 수행전통이야말로 현대인의 생활에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선수행은 한국불교의 탯줄이며 생명이다. 91세 노비구의 안거수행. 어찌 불자들을 향한 무언의 준엄한 경책이 아니겠는가.

화성=정성운 기자

* *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닦음이죠"

10년동안 20안거 성만 미국인 도문스님

"1천 6백여년동안 깃든 한국의 선풍이 오롯이 살아 숨쉬는 선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구하고 있노라면 서양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선미(禪味)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선수행만을 고집해 온 도문스님(미국, 46)은 동안거 해제식을 마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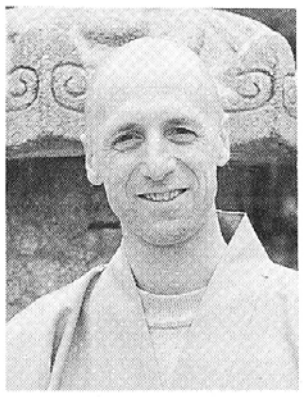
지난 77년 숭산스님을 친견하면서부터 한국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선에 매료되어 84년 득도했다는 스님은 고향 필라델피아에서 수억만리 떨어진 한국을 찾아 지금까지 10여년동안 공주 신원사와 화계사의 국제선원에서 용맹정진해 오고 있다. 국제포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스님의 구도수행은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언어와 인종, 국경을 초월한 18개국 40여명의 수행자들이 동참한 이번 동안거동안 가장 근기가 강한 수좌로 꼽힌 스님은 "한국의 사찰들은 대체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심산유곡에 위치해 있어 수행자들이 정진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여건"이라며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스님들과 마주앉아 정진해 보고 싶습니다"라는 의욕도 보여줬다.

스님은 또 "이렇게 한국스님들과 정진을 함께하면 한국선풍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외국수행자들에게는 수행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내 자신의 실체를 깨우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도문스님은 "이번 동안거 동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선과 독경정진으로 자신의 실체를 깨우치기 위해 한겨울의 추위도 잊고 살았다"며 "오늘 해제식은 수행의 끝이 아니라 더욱더 용맹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정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부좌 틀고앉아 참구 하노라면 서양서 맛볼수 없는 禪味 느껴"



만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도문스님은 서투른 한국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모두 중요한 수행이고 어디에 있건 화두를 항상 잃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라는 말을 마치고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공주=김중근 기자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사무사유의 뜻 궁금해요

문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중에 가끔 사무사유가 한데 합쳐서 무위세계 유위세계가 같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사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강성한·부산 서구 동대신동〉

답 사무사유의 용어풀이가 궁금하신 모양인데 그냥 무위세계 유위세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말의 뜻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무라고 하면 유위법 즉 물질세계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말하자면 무색의 경계, 공의 자리를 뜻합니다. 사무를 사무색이라해도 좋고 사공처라 해도 됩니다. 시공이 끊어진 자리라 해도 좋습니다. 또 공무변처니 식무변처니 무소유처니 비상비비상처니 하면서 넷으로 나눠 말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알음알이 보다는 사무하면 그냥 무! 해도 좋고, 공! 해도 좋습니다. 사유도 그냥 유위세계로 보면 됩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중생이 미혹에 빠져 생사유전하는 상태라고 해도 좋고, 색계를 이른다 해도 좋습니다. 넷으로 나눠서 생유·본유·중유·사유라고 하지만 그냥 윤회의 굴레, 또는 함이 있는 유위세계라 해도 됩니다.

흔히들 사무사유다, 무위세계 유위세계다 하면 별개로 생각하기 쉬운데 유무가 상통하여 둘 아닌줄 아는게 이 공부입니다.

관법 의지하면 종교 무관한지

문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관법에 의지한다면 같은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훈·경기 안산시 신길동〉

답 과일 가게에 가보면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모아 놓았듯이 종교와의 인연도 다겁생에 먹은 마음에 따라서 오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다 천주교다 불교다 하는 이름에 좌우되기 이전에 공부인연을 지었든지 사람인연을 지었든지 아니면 오랜 습기에 이끌렸던지 아무튼 먹은 마음에 따른 자동적인 인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다 이름이고 그 알맹이는 진리다 라고 한다면 어느 종교를 따르던 마찬가지이겠지만 가르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때 악마도 나타났고 미녀도 나타났고 신장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자신의 숙업이 환상으로 막 풀려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 그 환상에 끄달려서 이건 미녀구나, 이건 부처구나 하고 좋아하고 혹은 이건 마구니로구나 하고 두려워한다면 공부는 커녕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바른 스승의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만 쫓으면 됐지 절에 가서는 뭣하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바르게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흔히들 기복으로, 이론으로 쫓아가고 형상에 매어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늘 말하지만 불교는 일체의 생명과 마음이 상통하는 도리를 일컫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불교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를 이른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지만 불교에서 가르치는 마음도리를 벗어난 것이면 이름을 떠나 그 무엇이 되었든 바른 길은 아닌 것입니다.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나요

문 〈여보게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책을 써서 한때 크게 화제를 낳았던 스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만 최근 몇몇 월간지를 보니까 그 스님에 대한 석연치 못한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승갈때 뭘 가지고 가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조현동·전남 여천시 중흥동〉

답 이승 저승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또 어디 있고 천당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행하는 거기에 바로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이승 저승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냐에 따라 그대로 채곡채곡 업식으로 쌓였다가 인연생기의 도리는 그 업식 짊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니 천당도 지옥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내가 없으면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갈 곳도 가져올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입니다. 저승은 뭐고 가져갈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한번 돌리면 바로 극락이라 하지 않습니까.

3차원 세계를 사는 도리는

문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도리로 살아가야 합니까?

〈장신명·경기 평택시 고덕면〉

답 보고 듣는 이 세계야 3차원 세계이겠지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3차원에 묶여 사는가 하면 4차원도 그 이상의 차원도 있지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와 인간이 마음 바탕에서는 직결되어 있으며 세상만사 돌아가는 근본이 바로 인간의 마음먹기와 연결되어 있으니 그냥 한덩어리라 해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구와 인간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도리를 따라 살 것인가는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 불행과 액운, 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불행과 액운상담
고난과 시련, 불행한 액운, 사업실패, 가정불행, 학업실패, 결혼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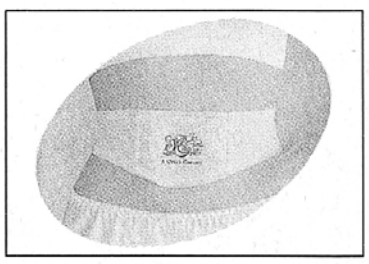
묘지상담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름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부산상담 ◆
•장 소 : 대한불교 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보우국사 열반지 소설암 찾았다"

경기 가평 설곡리서 유력한 단서 '石鍾' 발견
마을엔 "옛부터 소설암 있었다" 구전 전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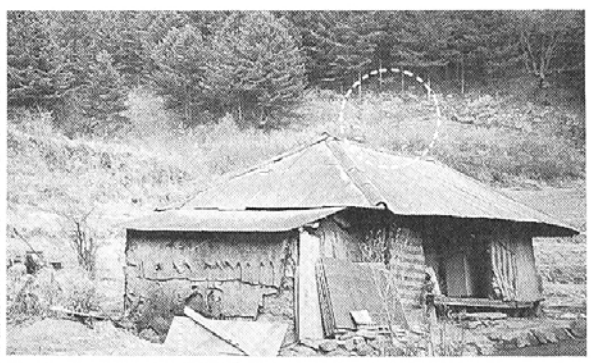
7백년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태고 보우스님의 열반지 소설암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에 위치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 가평문화원(원장 신현정)이 소설암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석종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문화원측과 관계자들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보우스님(1301~1382)이 '소설산에서 입적했다'는 사실은 〈태고록〉등 각종 사료를 통해 입증됐으나 정작 그 열반지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없었다는 점에서 보우스님의 열반지 확인작업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보우스님의 열반지로 추정되는 곳은 설곡리 691번지 일대. 설곡리의 옛이름이 소설리였다는 점과 이 일대가 절안(절이 있는 집)이라는 명칭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곳에 소설암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4년 가평문화원에서 발간한 〈가평의 자연과 역사〉에는 보우스님이 태어났다는 익화현은 현 설악면 설곡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강록도 '양근(지금의 양평)땅에서 북쪽으로 40여리 정도에 소설이란 부락이 있는데…'라며 설곡리를 기전십승지(畿甸十勝之地)로 적고 있어 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우스님이 임제종 제19대 법손이 된후 귀국해 4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보임했다는 소설암터로 추정되는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691번지 일대(점선안에 소설암 것으로 추정되는 석종(사진 왼쪽)이 놓여있다).

더욱이 이곳이 소설암터였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은 설곡리 691번지 가옥 20여m 윗쪽에 위치한 축대의 가시덤불 속에서 발견된 석종이다. 30여년전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종은 이 일대에 소설암외에 다른 사찰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소설암 석종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2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석종을 지키고 있다는 주민 박창신씨(34)는 현재 살고 있는 집(691번지)이 '절안'으로 불려왔다는 것과 이곳이 스님이 살았던 곳이라는 얘기가 그전부터 전해내려왔으며, 석종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곳이 소설암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박형진옹(82세, 설악면 설곡리 688) 역시 "오래전부터 이곳에 소설암이 있었다는 얘기가 마을에 전해내려오고 있다"며 "석종과 기와장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소설암터가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석종은 기단과 사리함이 없는데다 아직까지 학계에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연대측정등 정확한 검증이 없는 상태여서 이곳이 소설암터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20여년 전부터 소설암터를 찾았다는 이병호박사(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는 "양근군수가 사리를 받아 사나사에 봉안했다는 기록과 사나사에서 소설암터까지의 거리가 30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미원장이라는 지명이 미원이라는 지명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소설암터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현정 가평문화원장도 "동국여지승람에도 소설암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경기읍지〉에도 미원장(익화현내의 한 지명)소설암이 존재했다는 기록과 미원장이 미원현으로 승격됐다가 다시 양근군에 합병됐다는 기록이 있어 이곳이 소설암터가 맞는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다만 발굴과 학술적 탐사등 보다 명확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평=한명우 기자

대승사

응진전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觀音竹繞菩提路
(관음죽요보리로)
羅漢松圍般若堂
(나한송위반야당)
立絕俗塵憑慧劍
(입절속진빙해검)
生起苦海有慈航
(생기고해유자항)

春水淨如僧眼碧
(춘수정여승안벽)
遠山濃似佛頭青
(원산농사불두청)
萬壑松聲警鶴夢
(만학송성경학몽)
一廉月色映禪心
(일렴월색영선심)
法雨慈雲沾如澤
(법우자운첨여택)
松風水月見精華
(송풍수월견정화)

중생계 적시는 자비의 비구름 노래

관음은 대나무로 둘러싸인 보리로에 계시고
나한은 소나무에 둘러싸인 반야당에 계시며
세속의 번뇌망상 지혜의 검으로 모두 끊고
모든 중생을 고해에서 자비롭게 구하시네.

봄 개울물 스님의 푸른 눈 같이 맑고
먼 산 경치는 부처님의 푸른 머리처럼 짙도다.
산골 솔바람 소리에 잠자던 학 꿈을 깨고
주렴에 어린 달빛 선승 마음을 밝혀 주네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 연못의 물처럼 중생을 적셔 주고
솔바람과 물에 비친 달 속에도 사물의 정수가 깃들었네.

해설 대승사 응진전 주련은 두가지의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다. 앞의 내용이 관음보살과 나한의 자비를 칭송한 것인데 비해 뒤의 것은 매우 서정적인 묘사로 부처님의 자비를 일깨우고 있다.

앞의 내용에서는 관음보살이나 여러 나한들이 속세와 단절된 곳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보리로 반야당이 모두 속세를 초탈한 속세 즉 성불도를 이룬 자리에서의 속세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속의 번뇌망상에 끄달림이 없는 곳에서(그곳이 보리로이고 반야당) 고해의 중생을 구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뒤의 서정성과 선기가 넘치는 싯구는 화사한 봄날 문득 깨달음의 세계를 훼뚫어본 젊은 수행승의 환한 얼굴을 연상시키는 것만 같다. 스님의 눈같은 개울과 부처님의 머리같은 산자락들 학이 꿈을 깨어나는 솔바람 소리 달빛과 선승의 마음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법우와 자운이다. 법우란 중생을 교화하여 덕성스럽게함을 뜻하고 자운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듯 부처님 자비가 두루두루 미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산사의 한가롭고도 유려한 풍경 속에서 마음을 밝힌 선승은 자비와 진리의 비가되고 구름이 되어 중생계를 적셔 준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경지를 솔바람 소리와 물에 어린 달에서도 능히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성불사지 석불입상·장승 도문화재·민속자료 지정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소재 성불사지 석불입상과 석장승이 지난달 28일 강원도에 의해 유형문화재 제115호와 민속자료 제5호로 각각 지정됐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불입상은 높이 214㎝ 죽좌높이 35㎝ 크기의 고려초기 미륵불이며, 석장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조선시대 전기~중기 사이에 조성된 호법장승으로 몸체까지 조각한 톡특한 형태의 것이다.

창녕문화재 전시관 개관

창녕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조사, 연구, 수집, 보존과 공개 관람 등을 위한 창녕문화재전시관이 지난 2일 개관했다.

야외전시장 전시실, 시청각실 유물전시실 등을 갖춘 전시관은 총 2백40종 7백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중 1백66종 2백76점을 전시하고 있다.

"美 비트문화 정신세계는 불교"

트리싸이클지 5·60년대 비트인물 재조명서 밝혀


◇잭 케로악

◇알렌 긴스버그

◇조안 키거

세계적인 불교학술지 〈트리싸이클〉이 최근호에서 '불교와 비트세대'(Buddhism and Beat Generation)라는 주제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초까지 미국 비트문화의 르네상스를 일궈낸 인물 잭 케로악, 알렌 긴스버그, 조안 키거 등을 재조명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편집위원 케롤 톤킨슨의 비트세대의 반추와 더불어 이들 3명의 작품, 인터뷰, 일기 등이 실려있다.

케롤 톤킨슨은 '불교와 비트세대'의 서언을 통해 "냉전속에서 극대화된 소비문화와 핵공포에 압박 받았던 미국의 젊은이에게 잭 케로악의 소설 〈진리의 법〉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불교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진단해 불교와 비트문화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지적했다.

알렌 긴스버그(시인)는 "불교와 비트문화에는 물질적·현상적인 것보다는 인간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공통점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인 '찰라의 무상함'은 기독교나 마르크스주의와는 사뭇 다르지만, 비트세대는 관심을 가졌다"라고 트리싸이클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한 여류시인 조안 키거는 "비트세대에게 있어 불교는 심라만상의 거처였다"며 불교가 비트세대의 안식처였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잭 케로악(소설가)은 그의 소설 〈진리의 법〉에서 "네바다 주에서 발굴된 화강암에는 빙하시대를 견디는 침엽수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모든 힘을 진리(Dharma)의 초점에 맞출 때, 풍족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라며 주인공의 입을 벌려 토로했다. 또한 레비 에쉬(소설가)는 "비트세대는 불교가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는 고대 동양의 전통사상으로 보였다"고 지적하고, "50년대 미국 비트문인들 중에서 잭 케로악의 불교우화 〈진리의 법〉에서 불교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았던 비트세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 '인간에 대한 관심' 매료
> 젊은이들 안식처 역할
> 불교 미국 정착하는 계기도

한편 비트문화의 정신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비트문화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비트문화를 소개해 알려주는 리터러리 킥스(Literary Kicks)라는 웹사이트가 있으며, 20세기 비트문화의 중심인물인 알랜 와트의 개인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다.

오종욱 기자

"고려말 함허스님 空사상 정토신행·해탈의지 복합수용"

허정희 강사 "자연과 조화된 삶 강조" 주장

고려말 승려 함허(涵虛)의 사상은 '깨달음'과 '공사상' '죽음'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체계 속에서 정토신행(淨土信行), 해탈의지 등을 복합수용한 탁월한 道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허정희 강사(국민윤리)는 최근 발간된 '95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5집'에 실린 '함허의 사상적 특성'이라는 논문에서 함허의 깨달음, 공사상, 생사관 등의 고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함허의 깨달음에 대한 관점 역시 공사상을 바탕으로 천지만물을 깨달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허씨는 주장했다. 깨달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인간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표현하고 자연과 조화되지 못하면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진리에 부합된 인간적 삶의 제시며 우주진리에 부합될 때 인간적 고통에서 벗어나 원융무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함허의 불교사상은 당시대에 유학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근원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空사상 고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허씨는 함허의 저서 '금강경오가해'를 인용해 그의 공사상은 有, 無를 초월한 인간의 생사관을 해결하기 위한 깨달음의 목적을 향한 인식체계의 논리구조를 담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함허의 불교사상은 당시대에 유학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근원적 문제를 풀기 위한 그의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허씨는 설명했다. 〈우〉

선우도량 제10회 수련결사
「 미래사회와 승가상 」

귀의 삼보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아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창립된 좋은 벗들의 모임,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승풍진작'을 지향하는 선우도량의 제10회 수련결사가 '미래사회와 승가상'을 주제로 실상사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열릴 수련결사는 무성한 논의로만 피져있는 미래사회에서 지향되어야 할 승가상은 무엇이고, 佛典과 역사속에서 변천되어 온 승가상은 어떠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법·수행·연구의 장에서 바쁘시겠지만 수희동참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미래사회와 승가상
·구성 : 기조강연(홍선스님)
발제1-불전에 나타난 승가상(혜담스님)
발제2-불교사에 나타난 승가상(법성스님)
발제3-미래의 승가상에 대한 모색(종림스님)
·때 : 불기2540(1996)년3월27~29일(음력2월9~11일)
·접수시간 : 3월27일 오후 2시
·곳 : 근본도량 지리산 실상사
·대상 : 비구스님
·참가비 : 3만원
·준비물 : 대가사
·문의처 : 실상사(0671)34-3772, 34-3757
서울사무소(02)742-6916, (팩스)742-6917

선우도량 공동대표
혜담 도법 현봉 합장

광명선원 제 2 회 능엄법회

월운 큰 스님의 증명하에 제2회 능엄법회를 열어 법장스님(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을 강사로 모시고 능엄세계를 펼쳐보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 바랍니다.

· 입재 : 불기2540년 3월13일(수) 오전10시
· 입제법문 : 월운 큰 스님
· 강의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7개월 과정
· 강의료 : 7만원
· 문의 : (02) 584 - 1108 · 587 - 3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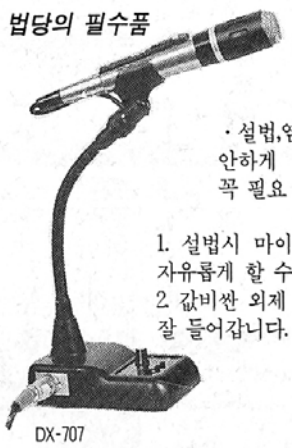
봉 선 사 서울포교당 방배동 광명선원

중국명문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연수

·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8박9일
·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 연수후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 인원 : 15명 이내
· 출발일 : 1996년 3월 21일 (목요일)
·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 - 2026 · 2027
511 - 2028 · 1080
FAX. (02) 511 - 1080

법당용 특수 마이크
법당의 필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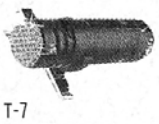
· 설법,염불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하고싶은 스님들께 꼭 필요 합니다.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제 마이크보다 멀어서 잘 들어갑니다.

염불전용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 공급가:180,000원



TM-108 (신제품)
목걸이 마이크
· 공급가:85,000원



T-7
경전강좌,설법 각종법회용
유선핀 마이크
· 공급가:45,000원

본사 : 158-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6-7
전화 : (02)697-9976, 605-3235 FAX : (02)695-9676
영등포전시장 전화 : 671-9356~7 유코전자

석정스님 佛母60년 결산

◇한국불화계의 거봉 석정스님이 佛母 60년을 결산하는 개인전을 연다. 스님의 작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인 이번 '석정展'에 전시된 '석가모니불탱화'.



세종문화회관 20~23일 · 부산 국제문화회관 4월 3~6일

첫 개인전… '한국의 불화시리즈' 기금마련
탱화등 280여점 엄선 '석정서화집'도 발간

광생을 탱화조성과 보수에 정진해 온 한국불화계의 거봉 석정스님(71)이 60년 불모(佛母) 인생을 결산하는 '석정전(石晶展)'을 갖는다.

오는 20~23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4월 3~6일 부산 국제문화회관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석정전'에는 스님이 광생 소장해온 불화와 선묵화 중 가려뽑은 2백여점이 전시된다.

그동안 수많은 탱화와 불화를 그리고 각 불사기금마련 서화전에도 서슴없이 화폭을 꽤 착해 온 스님이지만 좀처럼 개인전을 안가진 스님이 70광생 처음 개인전을 열게 된 계기는 스님이 총재로 있는 '성보문화재연구원'의 〈한국의 불화〉 시리즈 간행 대작불사 기금마련을 위해서다.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 1천5백여 사찰에 소재한 5천여점의 불화를 조사 촬영하고 도록으로 만드는 이 작업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정스님

불교계뿐 아니라 국가적 문화사업이 될 이번 불화조사는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대불사라 석정스님이 기금마련에 앞장서기 위해 소장작품 일체를 연구원에 기증한 것.

이번 전시회에는 부처님과 각 보살들의 탱화뿐 아니라 달마조사상, 난, 연꽃 등 선묵화, 글씨 등 스님이 광생 그려온 다양한 주제의 그림, 글씨가 전시돼 '불화가'로서의 스님의 한 광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번 개인전이 더욱 뜻깊은 것은 스님이 직접 가려뽑은 280여점의 수작그림이 도록으로 엮어지는 〈석정서화집〉과 자작·번역시를 모은 〈석정시문집〉이 전시에 맞춰 발간되는 것. 시문집은 이미 발간한 〈선주여묵〉과 〈선주산고〉가 한데 모아져 자작시 270편과 번역시 140편이 함께 수록된다. 특히 시문집에는 최완수씨(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의 200여매에 달하는 〈석정화상평전〉이 결들여져 스님의 삶과 이력을 생생히 조명, 소설과도 같은 감동을 준다.

금강산에서 태어나 3세때 천자문을 떼고 불화를 모사하기 시작 6세대 이미 '금강산 신동화가'로 널리 알려진 석정스님은 15세때 송광사에서 석두(石頭)스님을 은사로 대우(大愚)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출가 직후 16세에 당시 가장 광관높은 불모 김일섭스님을 은사로 불화를 배우기 시작, 재주를 인정받은 스님은 은사를 도와 송광사 사천왕 보수불사, 남장사 관음사 등 불사에 참여한다. 이후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곡성 도림사, 송광사, 통도사, 운문사, 봉은사 등 수많은 사찰의 불상과 탱화조성 및 보수를 맡아왔으며 지난 1992년 11월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경숙 기자

전시안내



◇정묵스님作 '蓮'.

정묵스님 '연' 수묵전

정통수묵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정묵스님(수덕사 재무)의 작품전이 오는 20~26일 공평아트센터(02-733-9512~4)에서 열린다.

불교의 상징인 '연(蓮)'을 주제로 한 이번 작품전에는 수묵의 농담과 필선을 빌려 마음의 형상을 '연'으로 표현한 그림 120여점이 전시된다.

하인두씨 유작展

만다라 그림의 대가였던 서양화가 고 하인두씨의 말년 작품을 볼 수 있는 '하인두 유작전'이 14일부터 4월4일까지 갤러리 서미(02-545-9740)에서 열린다.

하인두씨가 80년대 중반 이후 투병중에 그린 '혼불·빛의 회오리' 연작이 공개되며 이전 작품에 비해 한층 대담하고 현란한 색채와 선이 돋보인다.

현정씨 첫 개인전

현정씨가 불심을 화폭에 담은 첫 개인전 '마음 한 조각을 찾다'를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사동 덕원갤러리(723-7771)에서 갖는다.

현정씨는 전시회에 맞추어 명상시화집 '마음 한 조각을 찾다'를 발간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주최 '96 불교청소년의 해 및 문학의 해 기념 제17회 전국 만해백일장에서 전미향씨(대학·일반부)의 '새 봄'이 대상을 차지했다.

'새 봄' '독도' '부처님 앞에서'라는 시제로 시·시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백일장에는 초·중·고등부, 대학·일반부 5백여명이 참석, 최용탁(대학·일반부) 박완영(고등부), 이소희(중등부) 이태정(초등부)군이 각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만해백일장 전미향씨 '대상'

새 봄 전미향 作

어머니는 다래나물을 다듬고 계셨다
이제 조금씩 자라는 봄벌이
치맛자락 만지작거린다
땅이 녹는 소리를 타고 어머니의 머리는 이제 반백이 넘어버렸다
봄은 세월도 데리고 왔다

젊어서 모두 잃어버린 할머니의 이빨은
끝이 닳은 수저였다
뭉툭한 수저에 파인 사과의
하얀 속살은 한참을 입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끝내 봄나물 한번 씹어 드시지 못한 채 묻히신
할머니의 무덤 위로
숫가락 같은 봄꽃이 핀다

차곡히 쌓인 바구니속 나물 아래에 땅이 녹고
마당 구석부터 연초록으로 물드는 봄 한나절
그릇들을 챙겨 일어나시는 어머니의 치마에서
깜빡 졸던 봄벌들이 떨어진다



묘심스님
음성포교 12년 회향

장애인돕기음악회 6월 5일 '고별무대'
"불자음악가 위한 무대확대등 육성 시급"

음성공양으로 포교에 나섰던 묘심스님(금강선원장)이 오는 6월 5일 신체장애자 돕기 자선 음악회를 끝으로 12년간의 음악활동을 회향한다.

"처음 음성포교를 시작할 때와 달리 이제는 불교음악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펴기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이 벌어지고 있어 흐뭇합니다." 스님은 최단매체인 불교방송·TV의 개국으로 불교음악계가 보다 많이 발전되었고 따라서 음악발표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에 이제 사중 불사와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힌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노래할 때마다 늘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부처님 은혜에 미흡하나마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묘심스님은 그동안 개인발표회 등과 12회의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등을 공연해 왔다.

잊지못할 무대는 안양교도소에서의 송년음악회. 8년간 계속된 안양교도소 위문공연에 클래식 성악가들을 대거 동참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교계도 기존의 성악가들을 데려만 올게 아니라 내부에서 불자음악가를 키워야 합니다. 자꾸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앞으로 불교음악인들을 위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묘심스님. 오는 6월5일 오후 7시부터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회향기념음악회에는 묘심스님 외에 테너 조영수, 이춘기, 소프라노 권영희씨 등과 비로자나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숙)

불심시심 (45)

늙은 입에 든 늦봄 향기

月華當戶夜三更 (월화당호야삼경) 달 꽃 문에 들어 밤은 삼경
靜聽松琴浸興長 (정청송금만흥장) 솔거문고 조용히 듣자 흥 절로 인다
豈料天明春色暮 (기료천명춘색모) 어찌 알랴, 날 밝아 봄빛 져물지만
老花飛入老賢香 (노화비입노순향) 늙은 꽃 날아들어 늙은 입술 향기로울 줄

침굉대사의 시이다. 원제목은 황화산(黃花山)이란 절이 보내 온 시에 화답한 시이다. 보내온 시에서는 "뜰 앞 외로이 선 저 하늘빛, 한 줄기 신선 바람 소매 가득 향기롭다(庭前獨立心天外 一縷曖曖風滿袖香)"이라 하였다. 이쪽을 신선의 향기라 미화시킨 대답을 꽃잎이 이 늙은이의 입술로 날아 들어 이 늙은 입술이 향기로와진다 하였으니 그야말로 달관된 시인의 재치이다.

달빛을 달꽃(月華)이라 하였으니 그저 빛이 아니라 문에 드는 달의 꽃무리이다. 밤도 깊어 삼경이 지나고 있다. 솔바람이 솔솔 불어 산들거리는 율림이 방안까지 들려온다. 이것은 자연의 음악이다. 바로 솔거문고 소리이다. 여기에 이끌려 깨어나는 흥취가 짙다. 아무리 선정으로 가라앉힌 세속의 정이라 하지만 이렇듯 신비로운 자연정서마저 잠재우지는 않는다. 이 자연정서가 바로 선미를 느끼게 하는 본연의 감성이 아닐까.

소슬한 솔바람이 비록 자연음악의 거문고이기는 하지만 밝는 내일 아침에는 꽃잎에는 예상하는 앞미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봄은 이미 늦어 꽃 잎이 질 것이요, 그 자는 꽃이 나의 입가에 날려 들지도 모를 일이다. 자는 꽃잎도 늙음이요, 나 또한 늙은이의 입술이지만 이 꽃으로 해서 내 입술은 향기로울 것이다. 전편의 시의가 향기를 뿜어내는 순간이다.

이렇듯 이 시는 단어 하나 하나가 참신하다. 달꽃이니 솔거문고니 늙은 꽃 늙은 입술의 향기 등이 모두 일상에서는 흔치 않은 용어이면서 한 편의 시로 융화되면서 전편을 향기롭게 하였다. 모두가 시인으로서의 영감적 시어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선사의 사물관으로 대경의 모든 사물을 대경으로 놓아 두면서도 한편으로 그 자연을 나에게로 유인하여 즐기는 자세이다. 이 늙은 입술의 향기, 이것은 바로 노스님에게서 나오는 법문의 향기가 아닐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한국문화예술' 인터넷 소개

문체부 '전자사랑' 홈페이지 25일 개설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적인 통신망 인터넷을 타고 전세계로 소개된다.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4일 초고속 공공응용서비스 시연 및 설명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전자사랑' 홈페이지를 개통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사랑방은 '문화재정보서비스' '전자박물관' '전자미술관' '전자도서관' 등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질의어를 통해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 방식의 최신 멀티미디어 웹(web) 서비스이다.

문화재정보서비스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기본 자료 7천건, 설명자료 3천5백건(국·영문), 이미지정보 1만건 등이 있다. 전자박물관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유물·국보·보물 등을 대상으로 우선 1천점이 제공된다. 전자미술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전자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 등이 각각 본문·이미지·동화상 등을 통해 소개한다.

전자사랑방은 문체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종합정보망구축계획" 중 1단계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추진되었다.

앞으로 문체부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한국문화공간종합안내서비스' '3차원 정보서비스' 등의 2·3단계 사업을 2010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자사랑방 인터넷 주소는 HTTP://NS.MOCS.GO.KR 이다.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合掌-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3월 25일 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 일 정 :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체-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 230만원
- 기 간 :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 180만원
- 기 간 :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대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 135만원
- 기 간 :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 · 상담환영 (일정조정 가능)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아-시기리야-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드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 145만원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0〉

明敎嵩禪師尊僧篇 (명교숭선사존승편) ②

不修形骸 不貪生不懼死 不滯乎五味
불수형해 불탐생불구사 불욕호오미
其防身 有戒
기방신 유계

육신을 닦지 않고 생을 탐하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오미에 젖지 않는 까닭이니라. 그 몸을 지키는데는 계율이 있고

攝心 有定 辨明 有慧 語其戒也 潔清
섭심 유정 변명 유혜 어기계야 결청
三惑而單身不污
삼혹이필신불오

마음을 거둬 잡는데는 선정이 있으며 밝혀 가리는데는 지혜가 있느니라(계·정·혜 삼학을 말함)
그 계로 말할진대 세가지 혹심(살인·도둑질·간음)을 청결히 하여 마침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語其定也 恬思慮正神明而終日不亂 語
어기정야 념사려정신명이종일불란 어
其慧也
기혜야

정으로 말할진대 생각이 고요하고 신명을 바르게해 종일토록 어지럽지 않으며, 혜로 말하면

崇德辨惑而必然 以此 修之之爲因 以
숭덕변혹이필연 이차 수지지위인 이
此 成之之爲果
차 성지지위과

도덕을 숭상하고 욕심·의혹을(낱낱이) 가리는게 필연일 것이니 이로써 닦음의 인연을 삼고 이로써 성불의 과를 이룬다.

其於物也 有慈有悲 有大誓有大惠 慈
기어물야 유자유비 유대서유대혜 자
也者 常欲安萬物
야자 상욕안만물

그 물물에(일체만물 경계를 대함에) 자도있고 비도있으며 큰서원, 큰은혜도 있으니 자라고 하는것은 항상 만물을 편안케 하고자 함이오

悲也者 常欲拯衆苦 誓也者 誓與天下
비야자 상욕승중고 서야자 서여천하
見眞諦 惠也者
견진체 혜야자

비라고 하는것은 항시 중생의 고통을 건져주고자 함이요
서원이라하는것은 일체의 유정·무정과 더불어 진리를 깨닫고자 맹세함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惠群生以正法 神而通之 天地 不能掩
혜군생이정법 신이통지 천지 불능엄
密而行之 鬼神 不能測
밀이행지 귀신 불능측

모든 중생에게 정법으로써 은혜롭게 하는 것이다.
무애자재한 신통력인지라 천지가 능히 덮어 가리지 못하고 행주좌와가 진리에 계합하는지라 귀신도 능히 헤아리지 못하며

其演法也 辯說不滯 其聽法也 奮不顧
기연법야 변설불체 기호법야 분불고
身 能忍人之不可忍
신 능인인지불가인

법을 펼적에는 변설에 걸림이없고 법을 수호함에는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아 사람들이 참아내지 못하는 것을 능히 참고

能行人之不能行 其正命也 弔食而食
능행인지불능행 기정명야 걸식이식
而不爲恥
이불위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해내고 목숨을 부지함에는 밥을 빌어먹을 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其慕欲也 糞衣掇貧 而不爲貧 其無爭
기과욕야 분의철반 이불위빈 기무쟁
也 可辱而不可輕
야 가욕이불가경

욕심이 적으매 더러운 옷 꿰맨 발우(부처님께서 라후라가 발우를 떨어뜨려 깨자 이를 꿰매어 사용하심)라도 가난하다하지 않으며 다툼이 없으매 가히 욕되게 해도 (욕되게한 사람을)업신여기지 않으며

其無怨也 可同而不可損 以寶相待物
기무원야 가동이불가손 이실상대물
以至慈修己
이지자수기

원망함이 없으매 가히 같이 하더라도 손해나게 하지 않으며
실다운 이치로써 일체 사물에 응대하고 지극한 자비로써 몸을 닦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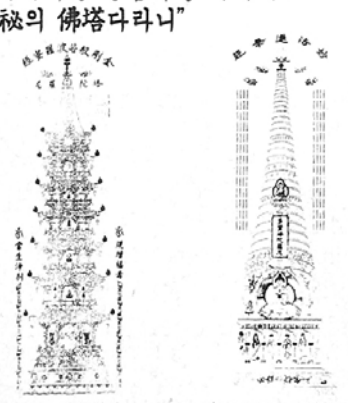
龍眼

"계·정·혜 삼학으로 수행의 인연삼고 자비로 몸을 닦아 성불의 과 이룬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파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 및 관념파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 864-3740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지상법석

"사람 노릇만 제대로 하면

화엄스님

〈동림사 조실〉



약력
- 1945년 일본 대판의학전문 졸업
- 48년 범어사서 동산스님 은사로 득도
- 73년 범어사 주지
- 74년 영구암 주지

보제존자께서 오성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을 일러 생사라 한다. 마땅히 생사에 처하여 힘써 화두를 들어라. 화두가 순일하면 일어나고 멸함이 다하리니 일어나고 멸함이 다한 곳을 고요하다고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를 깨우치지 못하면 무기라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를 그치지 않으면 영이라한다. 이로써 공적의 영기가 비춰 무너지지 않고 잡됨이 없으니 공을 이와같이 쓰면 머지않아 이뤄진다.

이것은 내가 40여년을 중노릇하며 거울같이 들여다 보는 구절입니다. 어려울듯 보여도 찬찬히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도 좋은 구절이라서 종종 이 글귀를 풀어드리는데 듣는 이들도 좋다고 하더군요. 보제존자 나옹화상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보제존자 나옹화상은 누구입니까. 고려 공민왕때의 유명한 국사가 아닙니까. 그 스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오는데 나도 오늘 한자락 해 보겠습니다. 이 스님은 저 서해의 연화도란 섬의 백련사에서 입멸을 했다 합니다. 스님은 입적하는날 수백의 대중을 모아두고 마당가운데 장작더미를 쌓더

아픈사람 보면
함께 아파하고
굶주린 사람 보면
양식구해 배 채워주고
추운사람 보고
따뜻한 옷 입혀주면
사람노릇하는 사람

니 그 위에 올라 앉아 불을 지르고는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이 갈 놈이 없느냐"고 소리 치더랍니다. 그 불길에 누가 달려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나옹스님의 근처에 가지 않는데 오랫동안 그 절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던 늙은 비구가 비칠비칠 불더미로 다가오더니 "소승이 함께 가겠습니다"라며 불위로 뛰어 들었답니다.

이것은 생과 사의 경계를 딱 잘라버린 경지가 아니면 깊히 생각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구덩이를 두려워 않는 경지 즉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다 초월하는 곳에 이르러 본래 내 모습을 보기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중의 모습으로 여러분같이 재가신도의 모습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본래 나의 모습인가를 골똘히 생각하지는 것이 불교의 선(禪)인 것이니 어려워할 일도 아니고 망설일 일도 아닌 것입니다. 중이란 무슨 뜻인가하면, 승(僧)자를 풀이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찌기 사람노릇 한 사람을 중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일찌기 사람노릇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루두루 인간 세상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며 그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양식을 구해 그의 배를 채워 주고 추운 사람을 보면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 주는 그런 사람이 사람노릇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일러 육합(六合)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중생과 스스럼 없이 화합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노릇 잘 하는 사람, 다시말해 스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가사 입고 장삼 입고 있어야 스님인 것도 아니지요. 여러 신도님들도 사람노릇을 멋지게 잘하면 훌륭한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스님이 되고 안되고는 숙세의 업연에 따른 것인데 '사람으로 나기 어렵고 그 중에 남자로 나기 어렵고 그 중에 스님되기 어렵다'는 말이 있듯 자신의 업연을 거스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스님들대로 신도들은 신도들대로 사람 노릇을 잘하면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 극락정토, 화엄정토일 것 아니겠습니까.

6.25가 한창이던때에 부산 범어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이 백명이 넘었습니다. 다 열심히 정진하고 계율도 잘 지키는 눈빛 형형한 수좌들이었지요. 하루는 나를 비롯한 스님 8명이 기장 축도란 작은 섬으로 간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매우 큰 스승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딱히 일도 없으면서 겉보기에 집이 좋아 한번 들어갔던 집에 그 스승이 있었지요. 스님들이 왔다고 음식을 잘 차려 대접을 해 주는데 아무리 봐도 그 노장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밤이되어 다들 자는데 나는 잠을 못자고 있었어요. 새벽에 그 노장이 우리 자는 방으로 오더니 안자고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제법 눈 밝은채 하는 사람이 여기 하나있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는 나를 당신 방으로 데려가더니 선방수좌냐 묻길래 그렇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34-9490, 39-1906 / 야간 : (0342)706-3060

지상법석

이 세상이 바로 극락정토”

“불법은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중생들 생각속에 들어있어요”

‘나’ 버린 곳에 공덕쌓이고 ‘화합의 세상’ 만들수 있어

끊임없는 집착 아상을 낳고 사이사이에 생사가 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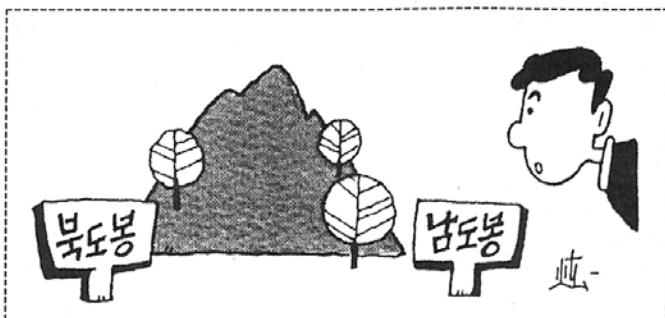
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이 백발의 노장이 “부처님께서 영축산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시니 가섭이 그 뜻을 알고 빙그래 웃었다 하더군요. 또 부처님이 지나가는 가섭을 불러 앉아 계시던 탑의 반쪽을 내어 주어 나란히 앉았다고도 하더군요. 입멸하여 슬피우는 가섭에게 부처님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어 보이셨다고 하더군요. 이 세가지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라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더군요. 물론 그 뜻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닌 줄이야 알아 차렸는데 이거참,내가 선방수좌라고 내 입으로 나를 소개한 내가 그 이야기를 생전 처음듣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뜻은 고사하고 그 노장의 정체가 궁금해 못견딜 판이었는데 그 노장이 들입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네가 중이라더니 무슨 중인가. 칠월백중인가 아닌밭중인가 오리무중인가 도대체 무슨 중인가 어서 말해 보게” 노장의 다그침 앞에서 고개를 못들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잠을 잘때에 보니 눈을 번하게 뜬채 코를 드렁드렁 골던 그 노장은 젊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인데 한참 산 생활을 더 하고 나서야 어느날 문득 그 노장의 물음에 대한 답이 나를 밝혀 주더군요. 그런데 그 노장님은 나를 또한번 놀라게 했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갔는데 상주에게 덮은 것을 벗겨보라고 했더니 또 눈을 번히 뜨고 있더군요. “노장님께서 저에게 나고 죽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 하더니 어째서 이렇게 죽은 몸을 뵙게 됐습니까”라고 시신을 향해 물었더니 아 글쎄 손가락을 까딱 하지뭡니까. 그래서 “손가락이 없으면 무엇으로 대답하려하셨습니까”라고 다시 물었더니 이번엔 팔을 번쩍 들어 보이더군요. 하도 어이없는 얘기라 믿지 못하시겠지요. 믿지 않아도 됩니다만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도록 절집 생활한 늙은이가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믿는 것도 안 믿는 문제는 항상 여기쯤에서 막혀 버리는 겁니다.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부터 막히니 그 다음을 무엇으로 알아 보겠습니까. 마음을 알아야 모든걸 알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내리 외우고 거꾸로 외운다 해도 그것은 마음이 외울때 외우는 것이며 외운바를 마음이 써야 바로 쓰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본래모습입니다. 몸은 마음을 드러내는 조각된 나무등걸에 불과합니다. 본래 모습인 마음 자리에는 우리가 분별하는 그 무엇도 없어서 그저 여여(如如)할 뿐이니 다툴 것도 시비를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다시 보제 존자의 가르침으로 얘기를 돌려 봅시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생각이 나고 사그라지는 찰라찰라에 처해 있는 것이니 한 순간도 우리는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일이 그침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는 다 아는 얘깁니다만 그만큼 마음의 쓰임을 잘 이해 시키는 얘기도 드물지요. 원효대사는 해골바가지로 맛있게 물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그것이 해골바가지임을 알고 이런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마음이 나타날때 가지가지 법이 나타나고 마음이 멸할때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 이 원효의 깨우침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여여한 마음의 자리를 확연히 들여다 본자리에서 가능했던 것이니 ‘나’라고 하는 부질없는 집착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집착은 한 순간도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아상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생각의 사이사이에 우리의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사의 갈래에 끼여진 인생일지라도 모름지기 힘을 다해 화두를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화두를 제기하는 것은 나의 근본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나의 근본자리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마음이요 선이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입니다. 유한한 시간속에 유한하게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니 무한하고 절대적인 나의 모습을 찾는 마음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고 정진해 화두가 순순히 풀려지면 생각의 일어나고 멸함도 다할것이고 그 다한 곳이 절대고요의 세계인 겁니다. 이미 생사의 고통스런 현상을 떠난 고요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마음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눈을 통해 사물을 보지만
>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 칠흙같은 어둠이 보이지요
> 그러면 어둠은 무엇으로 봅니까

화두를 제기함에 선방에서 가부좌하고 앉아 ‘이뭣고’ 하는 것만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의 참모습에 대해 의심을 품고 그것을 풀어보는 것도 화두요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지런히 부르는것도 화두일 것이니 무엇이든 마음을 잘 쓰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대장경이 모두 마음 잘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마음이 밝고 변함이 없을때 삼계도사(三界導師)요 사생자부(四生慈父)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니 부처의 마음을 내면 그 모습이 부처이고 중생의 마음을 내면 그대로 중생일뿐입니다. 저 구포 앞의 낙동강에 비친 달이 물따라 흐르는지 물이 달빛을 따라 흐르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물은 물로써 흐르지 아니하고 달빛은 달빛인채 그대로 있을뿐이나 바로 나의 의식이 흐르고 있어 강물이 흐르고 달빛이 흐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1

양 형 진

이사무애

전자나 빛은 한 쪽에서 보면 파동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입자이다. 도봉산을 서울 쪽에서 보면 남도봉이요 의정부 쪽에서 보면 북도봉이다. 큰 물에 바람이 일면 이 파도도 있고 저 파도도 있다.

도봉산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인연에 따라 수많은 도봉이 나타나며, 바람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부느냐의 인연에 따라 수많은 파도가 일어난다. 이렇듯 수많은 도봉과 파도가 나타나지만 그 불변하는 본체는 오직 하나 도봉산과 물일 뿐이다.

이 예로서 체와 용의 관계를 비유하여 설명해 보자. 여기서 체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일체 차별상의 근본이 되는 절대평등의 본체로서 일체 만물의 불변상주하는 본 모양을 가리키며, 용이란 체를 근거로 하여 인연에 따라 일체 차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도봉산과 물은 남도봉과 북도봉, 이 파도와 저 파도의 차별이 없이 불변하는 본체이므로 체가 된다. 도봉산과 물이라는 본체가 여러 각도에서 본 다양한 도봉과 여러 곳에서 이는 다양한 파도로 나타나 갖가지 차별상이 생기는 것을 용이라 한다.

“도봉산 보는 방향따라 형상 다르지만 상주 불변하는 본체는 오직 하나일 뿐”

그러나 이는 다만 비유로서만 성립할 뿐 체와 용에 대한 완벽한 예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봉산이나 물도 다른 산이나 다른 물건과의 관계에서 보면 엄연한 차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와 용에 대한 긍극적인 예는 색즉시공과 공즉시색 즉 진공묘유(眞空妙有)에서 찾을 수 있다.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결국 같은 말이지만, 이를 굳이 나누어 본다면 진공과 묘유를 의미하게 된다. 색즉시공이란 색으로 나타나는 온갖 차별상은 결국 무자성이어서 평등 무차별한 공이라는 의미이므로, 색이 숨고 공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체의 면에서 공을 강조하는 진공의 의미이다. 공즉시색이란 진여의 본체인 공이 곧 색이라는 의미이므로, 공이 숨고 색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용의 면에서 색을 강조하는 묘유의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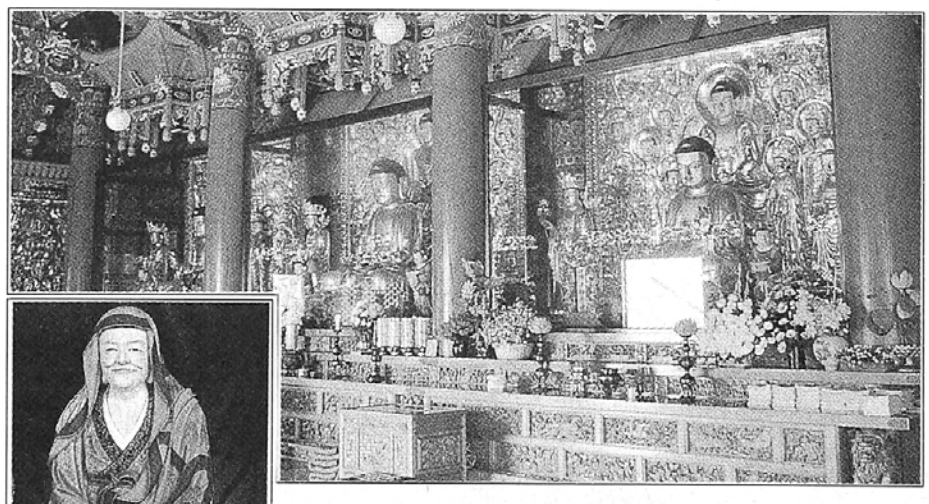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체용과 관련하여 화엄에서의 사종법계(四種法界)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종법계라 함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애법계, 사사무애법계를 말한다. 사법계(事法界)란 우주 만유의 현상이 서로 대립하여 차별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남도봉과 북도봉, 이 파도와 저 파도의 차별상이 드러나는 색의 세계이다. 물리학에 비유하면 이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하늘에는 달이 떠있는 현상의 세계이다. 이법계(理法界)란 차별의 만유는 서로 대립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에 일관한 본체는 절대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러 도봉과 여러 파도가 인연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상주불변하는 하나의 본체인 도봉산과 물의 세계를 가리킨다. 색과 대비하여 본다면 공의 세계이며, 물리학에 비유하면 사과와 달의 현상을 있게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제 이사무애법계관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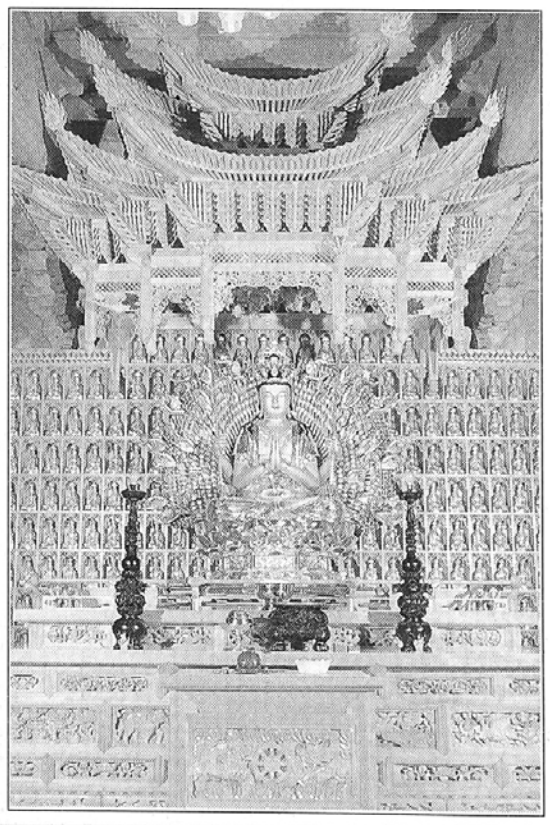
물리학이란 자연 현상의 규칙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그 모양이 훌륭하게 보이는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 현상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면 물리 법칙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예로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등의 무수한 개개의 현상과 떨어져서는 성립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봉이나 물이라는 본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개개의 도봉이나 개개의 파도라는 차별상을 떠나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파도가 곧 물이요 물이 곧 파도이며, 개개의 도봉이 곧 도봉산이요 도봉산이 곧 개개의 도봉이 된다. 이는 일체 차별상의 사법계가 절대 평등의 이법계와 상즉상입하여 원융무애함을 나타낸다. 이와 사를 다시 체와 용으로 보고 진공과 묘유를 그 예로 든다면, 이사무애법계관이란 체가 즉 용이고 용이 즉 체이니 진공이 즉 묘유이고 묘유가 즉 진공이어서 진공과 묘유가 원융무애하고 색즉시공이며 공즉시색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공(斷空)이 아니고 진공이다.)

그리하여 색즉시공이라 하면 색이 숨고 공이 드러나 공뿐인듯하고 공즉시색이라 하면 공이 숨고 색이 드러나 색뿐인 듯 하지만, 색과 공은 상즉하고 상입하여 서로 방해하지 않고 오직 원융무애할 뿐이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포로를 위하여





► 68 ◄

합두가 목을 축인 뒤 얼굴을 물로 씻었다. 그것은 얼굴을 씻는다기보다 얼굴에 물을 바르는 것이었다.

그런 동작은 두어번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다. 합두의 얼굴이 오천의 신선한 햇볕을 받아 아주 값비싼 금속(金屬)의 빛으로 불들었다.

이런 얼굴 모습에서 장차 불상을 조성할 때의 도금술(鍍金術)이나 불경의 장엄을 위한 이닙(泥金) 등의 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른다. 그만큼 그녀의 빛나는 얼굴은 물에 적셔져 있었던 그윽한 육감을 자아내는 것과 함께 빛나고 있는 위엄을 함께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얼굴이야말로 두 남자에게 한없는 격려가 되고 있었다. 이 의지할 곳 없는 사막 한복판이나 아니 사막 한복판에서 만난 구원(救援)의 오아시스 조차도 더이상의 구원이 될 수 없는 절망에 에워싸인 곳에 합두의 아름다운 얼굴이 태양과의 꾸밈없는 천연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태양이나 태양이 떠 있는 하늘에 대한 하나의 대칭(對稱)으로서의 대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저쪽을 보세요. 저쪽에도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가 담담하게 가리킨 곳은 이틀데면 어제의 사구가 바람에 의해서 내려앉은 곳에 몇천년 전의 화석 일부분과 함께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해골의 다리부분과 두개골이 아무런 목적없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들은 이제까지 잘 묻혀있었던 것이다. 어떤 뜻에서는 그것들은 모래속 깊이 묻혀있는 오랜 정상(正常)에서 바람이 허물어버린 사구 그 정상적인 행복을 빼앗겨버린 셈이다.

"어찌 이것들이 우리의 운명과 다르겠습니까"라고 만화가 긴 숨을 내쉬며 내뱉았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신이나 불이와 합두까지도 사막의 해골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였다.

그러자 불이가 그 말을 건너 뛰었다.

"해골 가운데는 누워있는 것도 있지만 걸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해골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옛날의 희미꾸레한 기억에는 내가 모든 육신을 갖춘 중생은 배다귀로 돌아간다는 것을 내세운 고골관(枯骨觀) 공부를 한 일도 있습니다."

합두가 대답하였다.

"그렇지요… 나는 해골바가지 하나를 잘 때마다 베개 맡에 놓아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골바가지가 밤마다 품고 자는 부처노릇을 어느 만큼 대신해준 것이지요."

벌써 그들의 걸음은 사막 위의 쭉쭉 빠지는 곳을 지나서 약간 굳은 사막에 접어들었다.

"물이다!"

라고 만화가 달려가며 외쳤다.

과연 이제까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풀 한 포기 보이지 않던 사막의 한 군데에 실로 볼품 없는 가시가 붙어있는 풀이 있었다.

그 녹색이라고 할 수 없는 희뿌연 줄기에 약간 녹색의 기운이 서려있는 것도 이 사막에서는 눈을 크게 뜨게하는 것이었다.

만화가 그 풀을 향해 뛰어나오는 길목에서 세사람 중의 불이가 대낮의 폭염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일이 생겼다. 따라서 다른 두사람도 그런 불이와 함께 이때다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그들은 한동안이 지나서 의식상태가 온전하지 않게 되었다. 머리속은 몽롱하였다. 그런 머리속에는 자꾸 헛된 생각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일로 착각을 이루고 있었다. 이를테면 만화의 앞에는 하얀 쌀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떡이 나타났는 것이었다.

만화가 그 떡을 집어먹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환청(幻聽)도 있었다. 어디선가 수많은 기병대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으며 그 말발굽소리 못지 않은 함성도 공중을 꽉 채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리에 놀라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런 판인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피잉!"

하고 멀리서 날아 온 화살 하나가 혼수상태의 불이의 어깨쭉지에 박힌 것이다.

"으음"하고 불이가 깨어났다. 그는 눈을 떴다. 어깨쭉지에 박힌 화살은 아직도 떨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화살을 붙들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단념하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하는 합두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날라와 박혔어요!"

하고 모래 한 줌을 쥐어서 그것을 돌팔매를 던지는 것처럼 합두에게 뿌렸다. 합두가 정신을 차려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들 중의 누구에게도 딴 한방울이 뿌려있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작열하는 햇빛 때문에 피부 밖으로 나오는 땀을 바로 증발시키기 때문이었다.

합두가 불이의 어깨쭉지에 박힌 화살을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힘을 주어 빼었다. 화살촉의 낚시때문에 어깨쭉지 깊숙한 살점이 함께 드러나는 고통이 따랐다. 붉은 피는 바로 굳어졌고 이어서 바로 딱지가 앉았다.

불이는 "앗"소리도 내지 못한체 입만 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화살을 맞지도 않은 만화가 의식이 깨어나서 어떤 악몽 때문이었는지 "아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불이의 비명을 대신 질러 준 것일까.

아무튼 세사람은 사막을 건너가는 동안 이따금 일어나는 의식의 쇠약증세로부터 깨어나서 불이의 몸에 박힌 영문모를 화살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 하였다.

화살촉은 매우 커칠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중국 변방 진주군의 한 부대 병사가 쏜 것인지 변방 강도집단들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구리로 된 촉은 꽤나 예리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 구리로 된 화살촉의 대를 꺾어서 내버린 뒤에 이어 사막 저쪽의 호물거리는 폭염 속에서 어떤 물체가 나타나고 있었다.

시간의 긴장감이 이 사막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그런 시간이 지나갔다. 사막 저쪽의 물체는 한 무리 낙타를 탄 병사들로 판명되었다.

저쪽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눈 앞에 그 낙타 스무마리에 가까운 무리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불이는 그것을 낙타가 아니라 말을 탄 병사로 착각하였다. 왜냐하면 낙타는 한결같이 붉은 천으로 장식해졌기 때문이었다. 낙타들도 오직 걷기만 하고 있었다.

어느덧 낙타에 태워진 세사람의 포로도 사막을 헤매기 보다 이렇게 사막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쪽이 훨씬 마음이 놓이기까지 하였다. 특히 만화는 합두의 예언이 들어맞는 것에 탄복하였다.

오아시스도 낙타떼도 다 들어맞았기 때문이었다. 정작 그런 예언의 합두는 이 행렬의 중간 낙타에 태워져서 대장의 각별한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낙타무리 가운데는 식자(識者)도 끼어 있었던지 고대로부터 이 일대에 떠돌고 있는 서역시편(西域詩篇) 가운데서 불교 취향이 짙은 '바람타령'을 흥얼흥얼 소리 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긴 침묵이 지루했던지 낙타가 한번 그 아릇한 울음소리를 낸뒤 이번에는 사람이 그 울음소리를 이어받는 셈이 되었다.

> "웬놈들이… 우리 두령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금구에 들어섰느냐" 세사람은 건장한 사병들에 의해 두팔이 뒤로 묶여 낙타에 태워졌다

한몸에 본디 잇속이 없느니
네가지(地水火風)가 한곳에 모인 것일뿐
바로 바람이 불에 달려옴인가
또 불이 바람을 돕아옴인가
바람이 강하면 불은 더욱 활활
불과 바람이 다하면
그때에야 별은 온 하늘에 뿌려지느니
一時無本利
四大聚會同
風火風吹火
風如火逐風
風猛火焰疾
風疾火倉惶
火風俱策盡
星散總成空

이런 '바람타령'을 읊조리는 것으로 보아 이 낙타무리는 옛 고창국(高昌國)이나 서역도호부(西域都護府)에서 이어져온 잔류인의 후예인지도 모른다.

"이제 다 왔다"라고 앞쪽에서 소리쳤다.

그림 · 조 향 숙

갑자기 화살 하나가 불이의 어깨에 박히더니 저쪽에서 기병대가…

"웬놈들이냐?"

"…."

"웬놈들이… 우리 두령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금구(禁區)에 들어섰느냐? 네놈들은 이제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

낙타 무리 한 가운데에 있는 쌍봉낙타에 탄 건장한 사람의 고개짓으로 세사람은 즉각 두 팔을 뒤로 묶여서 각각 낙타 앞쪽에 태워졌다.

"돌아가자!"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 낙타행렬은 오던 길과는 약간 다른 방향의 동북쪽을 향하는 것이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 침묵의 행렬이었다. 낙타들도 오직 걷기만 하고 있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특히 게재문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이도의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할수 없습니다.

문의
(02)737-6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선 관 단 식
극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수련장 시흥시 동행면 외유산 운남인로
안내 ☎ (0593) 34-111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응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古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8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시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록 다수
주식회사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인불 탱화 기타 (범종, 탁자, 족자등)
거송동양화 화실
거송철학원(운명조언)
서울시 용산구 청라1가동 140-3 (중신빌딩 308호)
전화 (02) 3273 - 0081
· 진품 배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 부적재료) 진품식별법 및 진품 공개 !!

포교에 뜻있는 분
포교의 서원을 세워 안양시에 포교당을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정성 주관 법사께서 동국대학원 학업 재준해 포교당에 계속 주석 할 수 없어 후임자가 필요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신도시 시장 입구 3층 건물 3층 포교당 공간 6평 (법당및 주방사무실)
특상 전용 사용(법)
신도시아파트 최대 밀집지역, 시장인근, 포교적지
연락처 (0343 - 29 - 3733, 호출 015 - 236- 3737)

탁자, 담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일원(해인사) 대웅전분 : 법상 · 불상
• 파주(대흥사) 대웅전 주지단 일상 문짝
• 서울(백련사) 법당 주지단 일상 · 후불탱
• 충주(정토사) 대웅전 주지단 일상 문짝
• 포천(명성사) 대웅전 문짝 단청
• 군산(은파호수공원) 대웅전 주지단 일상 불상
• 서울(백련사) 대웅전 문짝 단청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5-671-6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업계 톱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업계 최단 가능
축 산업회(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 · 수)「비디오강좌」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 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시비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학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졸업고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3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다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해 꼭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서경덕(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안의동 세운상가빌딩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청룡사 가족법회 '녹야인의 밤' 현장

노래·춤·연극 어우러진 온가족 찬불잔치

어린이·보살·거사 함께 꾸미는 무대
광명시장 화재에 성금모아 전달

"쿵! 핑핑리 쿵짝, 쿵! 짜짜자 작…" 7살짜리 꼬마 지휘자 김희영군의 지휘에 맞춰 어린이 악단이 앙증맞은 연주를 하는 동안 광명시 청룡사(주지 법운) 법당에 가득찬 가족법회(회장 김영희)회원들의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환하게 그려지고 있다.

2월 25일. 5회째 열린 청룡사 '녹야인의 밤'은 특별히 가족법회 전회원이 참여하는 가족 한마당 잔치로 꾸며졌다. 엄마 보살들로 구성된 청룡사 룸비니 무용단이 선비춤을 선보이고, 초등부 학생들의 탈춤 시연도 흥을 돋구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이 이어지는 동안 거사님들은 비디오 촬영에 전념하기도.

지난 93년 12월 첫법회를 시작한 청룡사 가족법회는 매주 일요일 가족법회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용맹정진법회등으로 가정의 화목과 불심을 높히는 견인차역할을 해왔다. 또 지난 1월에는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가족법회회원들이 정성을 모은 성금을 직접 전달하고 격려했다. 특히 가족법회 회원들은 최근 더욱 알차고 활발한 가족법회 운영을 위해 우리말로된 단(가족법회집)을 제작해 법회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날 녹야인의 밤 행사의 하일라이트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꾸민 연극 '각설이와 누룽지' 김수옥(광명상고)학생외 10명의 학생이 직접 각색, 연출, 분장을 도맡아서 만든 이 연극은 인연의 소중함과 불교의 윤회사상을 코믹하고도 정감나게 보여주었다.

가족법회 최은순보살은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었다"며 연신 즐거워했고, 가족법회 총무인 김진각거사도 "우리 가족법회 회원들이 이렇게 재주가 많은 줄 몰랐다"며 "가족법회의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이날 '녹야인의 밤'은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또 연극을 하면서 빚어지는 모든 실수조차도 사랑과 믿음속에 온가족의 웃음으로 피워낸 그야말로 불자들의 푸른 마당이되었다.

청룡사 주지 법운스님은 "가족법회를 시작한지 4년째가 되는 올해 이같은 가족불심화합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치루게 돼 너무나 흐뭇하다"면서 "가족법회의 활성화로 가정과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명나는 가족한마당잔치를 뒤로한 채 합장인사를 하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회원들의 마음속에는 더욱 튼실해진 불심의 나무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은자 기자

◇항상 여법하게 처리지는 청룡사 가족법회는 온 가족이 하나가되어 웃음꽃을 피운다. →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가두포교를 펼치겠다는 원력을세운 중도반 회원들은 전국 어느대학 불교학생회보다 신행활동이 왕성하다.

동아리1 계명대 중도반

'치우침 없는 자기수양' 25년

석가사서 매주법회…가두 포교로 일체감 형성

'증도사람'이란 대구 계명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일컬는 말이다. 그들은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1970년 4월 26일, 치우침없는 자기수양을 위해 중도(中道)반을 만들었다.

기독교재단의 대학에서 불교 동아리를 만드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협박과 '찬밥신세'를 숱하게 감내하는 인고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교내에 연등을 달거나 포스터를 붙일때는 언제나 등뒤에 와서 꽃히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야만 했다.

동아리신청을 한후 10년이 지나서야 정식등록이 가능했다. 한 회원이 삭발하고 본관에서 농성했다는 창립신화도 전설처럼 전해진다.

이런 연유로 해서 중도반은 재야적(?) 성격이 짙고 문제의식이 강하다. 교정의 잔디밭에서 수시로 열리는 막거리법회에는 순수불교와 민중불교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강경노선이 우위를 점할때도 있지만 중도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 법회가 신입회원에게는 세속적 잡념을 씻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중도반은 학업에도 열심이다. 한때 중앙도서관 4열람실 한쪽 귀퉁이는 중도반 고정석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도 남달라 해마다 열리는 동문체육대회는 동문선배들의 가족들도 참여하는 큰 축제 한마당이 된다.

매주 석가사(주지 경암)에서 법회를 갖는 중도반의 주요행사로는 꽃보시, 전통차 시음회, 사상강연회, 찬불가공연 등을 들 수 있다.

현 중도반회장 정성근군(법학2년)은 "올해는 앉아서 기다리지만 않고 가두포교에 나서겠다"며 "전법활동을 통해서 회원간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형성시켜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대구=이윤호 기자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우리절 X세대 스타

청주 관음사 박상열 군



대웅전 청소 솔선 누구에게나 다정

법회가 시작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대웅전을 말끔히 청소하며 법회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 주위의 눈길을 끈다. 매주 이렇게 정성스레 법회를 준비하는 박상렬군(청주중 3년)의 모습에서 '부처님 사랑' 정신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청주시 관음사 법회에서 으뜸 스타로 떠오르는 박상열군(청주중 3년). 다소 남자로선 예쁘장한 얼굴에 작은 체구이지만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법회에 나오는 선후배 법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상렬군은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한 얼굴에 친숙함부터 느낀다. 이처럼 박군은 후배들에게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대해서인지 그의 곁에는 항상 후배들이 떠나지 않는다. 특히 박군은 이미 선배들로부터 관음사 차세대 회장감(?)으로 내정해 놓을 정도.

"일주일에 한번 사찰을 찾아 법회를 봅니다. 하지만 그 한번이라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지 않으면 왠지 주위가 어수선하고 공부도 잘 돼지 않습니다"라며 "새학기에는 많은 후배들로 법당이 가득 찼으면 한다"고 말하며 후배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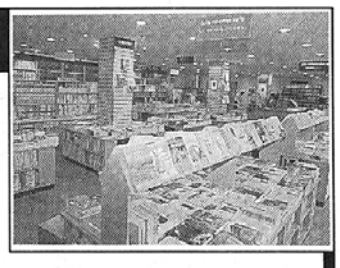
* 더러움의 장 *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이 향 원



불은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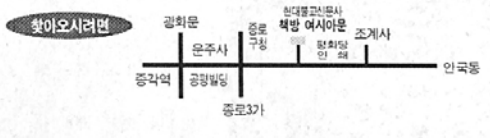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불교전문사전 편찬 꾸준

'한국사찰' '선시감상' '불교전적' 등 곧 출간

90년대 불교사·설화·불전해설등 다양화 추세

출판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사전편찬은 해당분야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 결과물이며 동시에 학술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지난해 9월 불지사의 〈선학사전〉 출간에 연이어 불교관련 사전의 편찬작업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불교학 기반 조성과 불교문화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시대사와 현암사가 4, 5월경 〈한국사찰사전〉과 〈선시감상사전〉의 출간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이 〈불교대사전〉 제1권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불교전적(典籍)사전〉과 영문판(한국불교문화사전)을, 불지사가 〈불교비유예화사전〉의 출간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불교관련 사전 목록

사 전 명	편·저자	출판사(연도)
불교사전	운 허	동국역경원(61)
한국사찰사전	권 상 로	이화문화사(62)
불교대전	한용운/이원섭	현암사(80)
한국불교대사전	편찬위원회	명문당(82)
불교학대사전	민 짐 부	홍법원(88)
불전해설사전	정 승 석	민족사(89)
불교실화대사전	한 정 섭	이화문화사(91)
한국불교사학대사전	조 명 기	보련각(91)
실범용어사전	오 인	실법원(92)
불교상식백과	홍 사 성	불교시대사(93)
한국불교인명사전	이 청	불교시대사(93)
불교용어바로게읽기	안 길 모	길출판사(93)
빠알리어사전	진 재 성	한국불교대학(94)
화엄경소사전	무 비	민족사(94)
선학사전	편찬위원회	불지사(95)
힌디(인도)한국어사전	편찬위원회	외대출판부(96)

불교시대사의 〈한국사찰사전〉(이정 편저)은 1910년이전에 창건된 7천여 전통사찰을 표제어로 수록해 소재지 및 소속종단, 연혁, 사찰에 얽힌 설화, 문화재, 주석했던 고승 등을 내용으로 싣는다. 도별 색인과 문화재 일람을 부록으로 구성, 이용에 편리를 기하고 북한소재 사암과 주요 폐사지도 소개한다.

지현스님이 6년의 작업끝에 출간하는 〈선시감상사전〉은 한국 1천3백여편, 중국 1백50여편, 일본 1백여편의 선시를 총정리했다. 선시 한편 한편마다 친절한 해석과 주해(註解)를 곁들인 스님의 감상문도 들어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오는 98년 완간을 목표로 지난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교대사전〉 편찬은 올 하반기에 첫 결실로 제1권(약 2만2천항목)을 선보인다. 전 10권이 완간되면 한국 인도 중국 티벳 남방 일본불교 불교일반을 망라한 20여만 항목의 표제어를 싣게 된다.

불교문화연구원도 2종의 사전편찬을 준비중이다. 이미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불교전적사전〉은 우리나라의 불교전적을 총망라해 체계적인 해제(解題)와 서지정보를 담게 된다. 7천여 표제어를 싣게 되는 영문판〈한국불교문화사전〉도 한글판 저본을 완성하고 80%정도 번역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의 선불교 전문사전인 〈선학사전〉을 출간한 불지사는 〈불교비유예화사전〉의 번역을 끝내고 출간시점을 관망하고 있다.

1961년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사전〉(운허스님 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나온 불교관련 사전은 모두 16여종 〈도표참조〉. 대부분 80년대 후반부터 쏟아져 나온 불교사전들은 90년대부터 불교사학, 선학, 불교설화, 빠알리어, 불전해설 등 부문별·주제별 편찬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과 시간, 인력이 요구되는 불교사전의 편찬은 불교학 연구성과와 불교출판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중요한 공익 문화사업이라는 점에서 종단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보광사 운영보고서 공개

'화두와 실천' 2호 발간

실천불교승가회(의장 지선·청화)의 근본도량인 파주 보광사가 사찰 운영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이 보고서는 94년 조계종 개혁 성사에 크게 역할한 단체의 하나인 실천불교승가회가 직접 운영하는 보광사의 총 수입 지출을 공개한 것.

이같은 자료는 최근 실천불교승가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화두와 실천〉 제2호에 실렸다.

〈화두와 실천〉 제2호에는 특별기고로 법성스님의 '미래사회와 불교', 기획시리즈로 홍윤식교수의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이해와 보존방향'을 조명했다.

기획 문화비평은 김재홍교수(경희대)의 '1995년 불교문학의 한 점검' 정재형교수(동국대)의 '영화감상과 독해 방법론' 유일상교수(건국대)의 '진정 언론은 알권리에 충실했는가' 등을 실었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한국의 석조미술'



정 영 호
〈교원대 박물관장〉

그동안 석조미술품들에 대해 각 분야별로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 석탑, 석불, 부도, 석비, 석등, 당간지주 등에 관한 논문이나 조사보고서가 단편적으로 있었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몇 권의 저술도 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석조미술품 전반에 대한 계통적인 조사 연구는 집성된 바가 없었다.

석조미술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언젠가는 석조미술의 각 분야를 총망라한 체계적인 집성작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항상 역설하면서도 그 실천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난해 출간된 진홍섭 박사의 저서 〈한국의 석조미술〉(문예출판사 刊)은 이러한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남아있는 한국의 고대 유적 유물은 그 수효가 석조물(石造物)이 단연 으뜸이다. 이것은 이웃의 어느나라 보다도 한국에는 화강암이나 남석, 수성암 등 여러 종류의 석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全)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내외 환란을 당했던 우리로서는 목조물, 지물(紙物), 토제유물(土製遺物) 등이 재난을 겪을 때마다 거의 소실 파괴되어 그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견고한 석조물 뿐이라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석조 미술품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많다. 4세기 후반 불교가 수용된 이후부터는 불교적인 조형미술품 전반에 걸쳐서 화강암이 그 조성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불교의 융성은 그 장엄에 따르는 여러 조형물의 조성을 서두르게 하였는데, 이때 다량으로 필요했을 화강암등의 석재가 어렵지 않게 충당되어 전국 방방곡곡에는 많은 석조물이 건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국 고대미술의 주류를 불교미술이 차지하게 되고 그 중심에 석조미술이 위치하게 된 것이다. 즉 석탑, 석불과 같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봉안물이 건조되었고 부도, 탑비와 같이 조상숭배에서 경영된 석조건축물이 조성되었으며, 석등, 당간지주, 석비, 노주, 석표처럼 각 사찰에서 사용하거나 홍법(弘法)에 이용하기 위한 석조물이 세워졌다. 또한 불교적인 건축물 이외에 석교, 석빙고, 석수(石獸) 등이 조성되기도 했다.

저자 진홍섭 박사가 책의 서두에서 "한국의 석조미술품은 한국 미술작품 전체에서 상당한 양을 차지하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특색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아름답게 표현된 석조물들은 모두 거론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듯이 이 저서에서야 비로소 한국의 석조미술이 총망라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50여년간 한국미술사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저자의 굽힐 줄 모르는 학문적 열정과 그 연구의 축적이 바로 이 대작 〈한국의 석조미술〉을 낳게 한 것이다.

진홍섭박사의 〈한국의 석조미술〉은 한국석조미술 뿐만 아니라 한국미술사·불교미술사 연구에도 다시 없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전국곳곳 석조예술 총망라

불교미술 연구·감상 길잡이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저자 김 정 빈(글) 최 병 용(그림)씨

"깨달음세계 형상화 작업 심혈" 김

"부처님·고승 표정 신경썼어요" 최



"3년전 부처님 평전인 〈깨달음의 향기〉와 〈법구경〉을 쓰면서 근본불교의 신선한 아름다움에 매료됐지요. 그후 이 감동을 불자들에게 전할 방도를 찾다가 이원복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등의 교육만화를 접하고 불교만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만화로 보는 불교 이야기〉 1, 2, 3권의 글을 쓴 작가 김정빈씨(45)는 위빠사나 명상 등을 통한 수행과 태국·미얀마등의 불교성지를 순례한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의 맛과 향기를 가능한 알기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냈다. 8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소설 〈단〉으로 유명한 김정빈씨는 "소설 수필 우화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깨달음의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림을 그린 최병용씨(44)는 "어려운 공동작업 과정에서 불교를 새롭게 배우게 됐고, 프로만화가로서도 창작활동에 중요한 계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스토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그림이 나오는 불교만화의 특성과 부처님과 고승들의 표정 연출이 가장 어려웠다"는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 개발과 섬세한 분위기 연출을 스스로 터득하게 됐고, 새로운 불교만화 작업에 대한 신심도 갖게 됐다.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4, 5권을 완간 예정. 〈재〉





새로나온 책...

▲불교민속학의 세계(홍윤식 외 지음)='불교민속'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킨다는 취지로 동국대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 이종찬)가 지난 94년 개최했던 '한국불교민속학의 과제와 방향' 주제의 학술회의를 비롯, 그동안 가졌던 여러차례의 토론 및 연구모임의 성과물을 책으로 엮었다. 〈집문당 9천원〉

▲광덕스님 명상언어집(광덕스님 지음)=불광사 회주 광덕스님이 월간 〈불광〉을 통해 연재해 온 글들을 계절별로 뽑아 봄 여름 가을 겨울 4권으로 엮었다. 스님은 우리의 본성생명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생명력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불광 한질 2만원〉

▲중관사상(윤종갑 옮김)=인도 중관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개괄적인 입문서이자 전문연구서. 중관불교는 원시불교와 부파불교를 섭렵·융해하여 유식불교와 밀교를 창출한 불교의 중심사상이다. 동경대 철학과 카지야마 유이치 교수등이 쓴 〈강좌 대승불교 7·중관사상〉을 옮겼다. 〈경서원 1만2천원〉

▲중관철학(김철수 옮김)=용수(150~250)의 생애와 그의 저작, 중관학파 제자들의 사상적 영향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다루었다. 저자는 양혜남(楊惠南) 국립대만대 철학과 교수. 〈경서원 1만2천원〉

▲강을 건넜으면 나룻배는 버리게나(홍여운 엮음)=진정 깨달은 자는 나룻배를 늘 타고서도 걸림이 없고, 나룻배를 떠나서도 걸림이 없다. 구도에 목숨을 건 선사들이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보여주는 초월의 세계를 그린 선 우화집. 〈고려문화사 6천원〉

▲소설 업보(혜범스님 지음)=소설 〈반야심경〉, 〈불꽃바람〉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의 작가 혜범스님의 장편 구도소설. 불교와 무속, 민중의식의 화합과 조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밀알 1, 2권 각 6천원〉

▲달마에서 경허까지(박영규 지음)=선종의 초조 달마로부터 조선의 선승 경허에 이르기까지 40여 선사들의 흥미진진한 일화를 통해 불교를 소개했다. 〈정신세계사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2	기도	일 타	효 림
3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5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최병용	고려원미디어
6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7	연선도인	백 운	우리출판사
8	사람의 길	향 봉	밀 알
9	금강경 이야기	법 륜	정 토
10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장 경 각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중국불교사

계환스님 옮김



중국의 사회·경제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교문화사를 다룬 이찌바다 료오슈의 〈중국불교사〉가 동국대교수인 계환스님에 의해 번역됐다.

중국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학적인 연구 위에 사회적 문화적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이 책은 인도불교와는 다른 중국불교의 독자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불교 사회·문화 통사적 고찰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자 불교와 중국사상 사이에는 두가지 관계가 정립됐다. 하나는 불교사상이 중국사상의 영향으로 인도불교에는 없었던 교리상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난 점과, 하나는 중국사상이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된 사실이다. 불교전래로부터, 대만·현대중국의 불교에 이르기까지 중국불교를 통사(通史)적으로 다뤘다. 〈우리출판사 7천원〉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다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3개 1세트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⑦

역사상의 佛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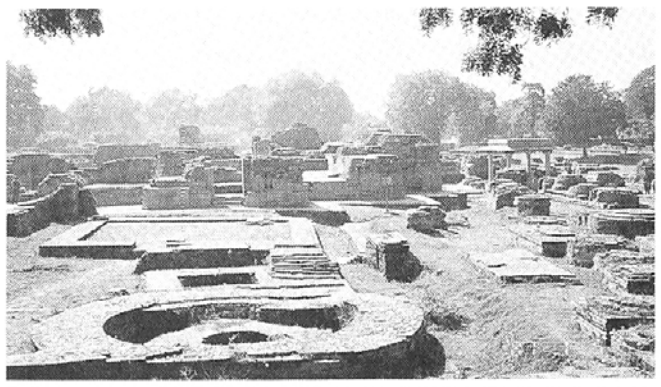
붓다의 전기를 연구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붓다의 생애에 대한 자료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전해 내려온 게 아니라 문학이나 전설의 형태로 알려져 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어느 개인이 자의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원래 사실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인도작가들의 과장법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이 없는 것을 조작해 낸 것 같지는 않다. 불전(佛傳)에 등장하는 정황묘사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실제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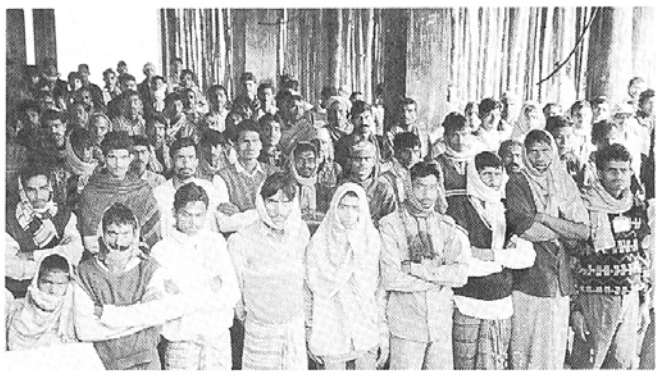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싯다르타 태자가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것이 그의 나이 29세 때였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정확한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어떠한 상징적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스승을 찾아가 배웠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단순히 찬양하기만을 위한다면 스승을 찾았다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테니 말이다.

붓다의 발병(發病)과 죽음에 관한 대목도 거의 사실적인 묘사에 가깝다. 붓다의 병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대한 몇몇 과장된 묘사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사실인 것 같다. 특히 기록된 전법 행선지와 오늘의 실제 지리(성지)는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서 잠깐 붓다가 살았던 기원전 6세기는 인류사에 성인들의 시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다. 공자(孔子), 노자(老子), 피타고라스 그리고 헤라클리토스 등이 붓다와 동시대인들이다.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붓다의 일생과 예수의 일생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예수의 전도생활은 격정적이고도 극적인 사건으로 채워진 반면 붓다의 전도생활은 인류의 스승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신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도둑들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부처님의 생애는 현대에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의미를 새로이 부여받고 있다. 사진 위는 최초설법지 녹야원의 전경. 아래는 룸비니의 한국절 석가사 기공식법회에 모인 네팔의 물자들.

쉼없는 중생교화 '인류의 스승'

"붓다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투는 원형이며 그 가르침은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연결된다"

45년간 전법행선지 인도지리와 일치

서구철학자 '지고한 정신세계'에 감동

있는 음식도 누군가가 꾸며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실적인 기록인 것으로 보여진다.

출가하기 전 태자로서의 싯다르타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묘사는, 출가 후 겪게 되는 고통스런 수행과 극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소 과장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불교학자 올덴버거(Oldenberg)는 '숫도다나'란 이름이 '순수한 쌀' 혹은 '순수한 음식을 가진 자'의 뜻을 가진 정반왕(淨飯王)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고 그가 왕이라기 보다는 넓은 쌀 경작지를 소유한 부유한 대지주였다고 생각했다.

정각을 이루기 전 붓다의 수행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그러나 45년간의 전법여행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기적에 교리는 태자가 출가하여 성도(成道)한 뒤 깨달음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보다 훨씬 강열하다. 그러나 관과할 수 없는 사실은 불교는 개인의 유일한 인격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같이 드라마틱한 인물상은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자체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두사람이 내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중 세번째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붓다는 '너희는 자기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라고 가르쳤다. 타력 신앙과 자력 신앙의 대조가 뚜렷하다.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는 말하기를 개인으로서 고타마의 존재는 불자의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덧붙이기를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붓다는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이땅에 나타나는 원형(原型)이기 때문에 붓다의 개성적인 모습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일회적(一回的)이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붓다의 삶과 가르침은 역사적인 주기 때마다 반복되며 고타마는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의 한 사슬의 역할을 다하였다.

출가수행의 전통은 고타마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도인에게 적용되며 오늘날에도 장년기를 넘어선 많은 인도인들은 가족과 재산을 뒤로하고 수행사문의 길을 걷는다.

에드워드 콘즈는 말한다. "서구의 역사학자의 눈에는 붓다의 인간적인 모습만 사실이고 신비로운 정신세계는 모두 픽션으로 보이겠지만 불자의 입장에서는 붓다의 지고한 정신세계가 일차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지 붓다의 개인사(個人史)는 찬란한 정신적 보석을 감싸는 누더기처럼 부차적인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서구의 불교사(佛敎史) 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인도인들도 역사를 경시한다. 연대기(年代記)적인 의식이 희박한 것이다. 11세기 초반의 아랍학자였던 알베루니(Alberuni)는 인도에서 1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도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나 왕위 계승의 계보(系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질문을 할라치면 어떤 대답을 만들어 답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

사실 인도인들에겐 어느 역사적인 날짜나 장소 혹은 개인의 이름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사상이나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붓다의 탄생지로 알려진 카필라바스투(城)는 샨캬교 창시자 카필라가 불교에 미친 커다란 영향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인도철학자들은 종종 여러시대의 철학학파들을 동시대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인도철학사가 확립된 것은 막스 밀러(Max müller)나 도이센(Deussen) 같은 유럽학자들에 의해서였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한 용 수 〈귀순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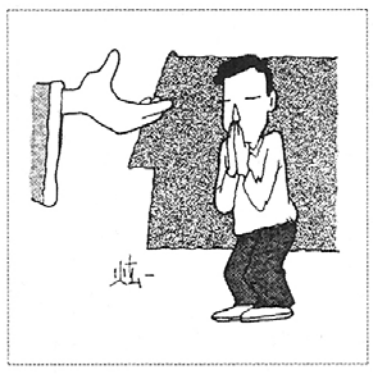
저는 1975년 6월 2일 함경북도 연사군 신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20년을 살다 남한에 귀순한지 9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제가 불교를 안다고 하면 무엇을 알겠고, 또 수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불교를 왜 믿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1995년 6월 12일 인민군 1군단 13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국군 7사단 지역인 강원도 화천군 지역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저로서는 종교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종교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의 기둥과 등불이 되어주고 의지해야 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교회에 더 많이 갔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책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보았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많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그런지 교회에는 별로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절에 나가 보았습니다. 절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두번 다니게 됐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절에 나오라, 부처님을 믿어라 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있었다면 종교는 자유다, 네가 가고 싶은데로 가라, 불교에 오든 기독교에 가든 네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교는 확실히 기독교와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또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모습에서 스님들의 성실함과 깨끗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은 〈부처님말씀〉이라는 책을 본 후였습니다. 그 책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마음에 옮겨봅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이 말이 제가 불교를 믿게 된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20년 동안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뇌를 받고 김정일사상으로 교육을 받아 온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또 인자한 스님 덕분에 부처님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가까이하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좋은 분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불교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 부처님께 이북에 계시는 저의 부모형제들과 친구를 또 크게는 북한의 국민들에게도 부처님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항상 부처님곁에 있게 해주시고 통일의 그날 부모형제들을 위해 적게나마 도움이 되도록 또 제가 사회정착을 잘 하고 북한국민들도 부처님품에 안길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불쌍한 중생들을 깨우쳐 주도록 해주십사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서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살이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 수계를 받았습니다. 광명선원 원장이신 초격스님께서 저에게 법경(法鏡)이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마침 며칠 전이 설이었습니다. 초격스님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하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연하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995년은 제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해였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보잘것 없는 저를 따뜻이 맞아주시고 부처님전에 세워주신 스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스님의 포교불사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새해 설인사를 드립니다. 용수 올림."

"불교는 확실히 기독교와 다르구나"

지혜의 말씀 김일성사상 세탁 "북녘에 전하고파"

불교소설의 진수!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대륙의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현대 첨단 과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기적의 실체인 등신불로 化하여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신라승 김교각 스님의 생애를
그린 책!



지장보살 김교각!
입멸 후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 382쪽 / 값7,000원

백운 장편소설
연선도인
① ②



하천한 천민의 모습에서
걸출한 큰스님으로 되기까지의
피나는 구도행각을 그려낸 소설!

신국판/① ②권/각권 5,000원 (③④권 집필중입니다.)

율곡에겐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듯
서산대사에게는 걸출한 스승 연선도인이 있었다.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봉, 6조 부용당 연선도인!

그로 인해
청허 휴정 · 부휴 선수의 양대 산맥이 힘차게 뻗어 나가
우리 불교계 전체를 이끄는 횃불이 되었으니 · · · · · ·

우리출판사를 아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최대의 선물!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 5056 팩스: 393-9696

방송가 소식

BBS 사장선임 논의

불교방송 이사회가 12일 신라호텔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95년 결산승인건 △불교방송 특별사업승인건(대탑건립 관련) △불교방송 발전위원회 구성건 △사장선임문제 △정관개정심의 소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장 선임건은 지난달 말 대한불교진흥원이 조계종과의 협의를 거쳐 나라기획 대표인 조해형씨(62)를 추천, 불교방송 재단사무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주佛放 AM전파

미주불교방송(이사장 담오스님)이 오는 24일부터 매주 1시간씩 미주한인방송 AM전파를 통해 방송지역을 확대한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미주불교방송의 성공적인 AM 방송을 위해 미화1만달러를 지원했으며, 불교방송도 방송확대에 따른 교리강좌등 1천시간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면조정 새 단장

불교TV가 3월 개편과 더불어 불교채널의 특성을 살린 화면조정화면을 새롭게 단장했다.

매일 마지막 방송이 끝난 직후 부터 다음날아침 9시 45분까지 방송되는 화면조정방송은 심우도를 비롯 유명불교미술작품을 배경으로 신작에서 구작에 이르는 찬불가를 함께 내보내게 된다.

"전자매체 포교방안 찾아라"

btn '뉴미디어시대…' 9일 정보사회 불교역할 점검

'부다피아' '대장경 연구소' 전산화 앞장
전문가 양성·사찰네트워크 구축 시급

"스님, 국민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근처 사찰의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법회 활동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도 익히고 같은 또래 아이들의 신행생활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스님과 신도가 컴퓨터 앞에 앉아 화상 신행상담을 하고 화상설법을 들을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더이상 가상현실이 아니다. 바로 몇년 뒤에 우리앞에 닥쳐올 멀티미디어 시대의 현실이다.

지난해 'TV 부처님 도래'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앞으로 몇년 후면 '컴퓨터 부처님'이 멀티미디어 세상 곳곳에서 화현하게 될지도 모른다.

불교TV는 지난 9일 창사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뉴미디어시대의 포교'(PD 유권준)에서 뉴미디어 시대 도래라는 첨단시대에 대비한 불교계의 새로운 포교전략을 모색했다.

이 프로는 21세기 생활의 필수품으로써 우리생활형태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컴퓨터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포교방안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이에대한 전 사부대중의 노력과 대응을 상기시켰다.

최근의 데이콤과 하이텔의 급성장,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주요 일간지들의 뉴미디어 사업참여 등의 실례를 통해 급속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더이상 불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불교계 최초의 사설 전자게시판인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의 데이타베이스 구축, 대장경연구소의 해인사 장경각 전산화작업 등 불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불교포교를 위한 바람직한 정보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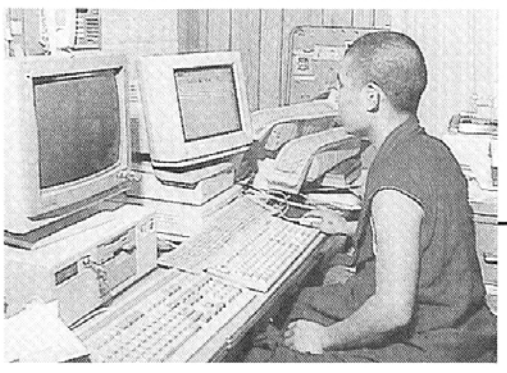
이를 위해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 불교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9일 3일간 전자우편을 통한 질문을 통해 '뉴미디어시대의 불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불교계 정보화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전담기구와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불교계가 타 종교에 비해 뒤진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컴퓨터 통신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부분의 후진성지적이 50%, 각종자료의 전산화사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35.7% 로 나타났다.

따라서 '뉴미디어시대의 포교'란 정보화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과 전문인력의 양성, 전국사찰의 네트워크 구축등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전 불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결론맺었다.

이은자 기자



◇미국내 거주하는 티벳 스님들은 컴푸터 통신을 이용한 싸이버상가를 조직, 정보교환 등 신행 포교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주 남산 탑곡계곡 부처바위 뒷면에 새겨진 9층탑 앞에서 황룡사 9층탑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는 취재팀.

"황룡사 옛모습 영상으로 본다"

KBS 특수기법 복원…초파일 특집 방영

신라왕국의 영화를 대변했던 호국불교의 중심이자 국찰이던 황룡사. 1238년 몽고의 침략으로 불에타 현재는 거대한 터와 주춧돌만이 남아있는 그 황룡사의 영화가 오는 초파일 되살아난다. KBS가 연중기획으로 마련한 'KBS 10대 문화유산 제 2편 영상복원 황룡사'를 통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이 프로그램은 미스터리 기법을 이용해 황룡사의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황룡사의 모습을 특수영상제작실과 실사를 통해 복원한다.

지난 64년 구층탑지에서 발견된 사리구 내면에 새겨진 명문을 바탕으로 높이 80m(약 27층 건물높이)의 황룡사 구층탑을 현 황룡사 터에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를 통해 세워 그 장대한 높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며, 또한 인도 아육왕이 보내온 황금과 철로 만든 6미터 높이의 장육존상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재현, 황룡사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황용호 PD는 "이미 1차 답사와 촬영을 모두 마쳤다. 오는 16일부터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 황룡사가 건립된 7세기 경의 가람형태와 목탑형식을 비교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현재 경주의 한 단체에 의해 황룡사 복원계획서가 문화재관리국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불교계가 이번 기회에 기억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동양최대의 사찰 황룡사 복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국사의 4배가 넘는 2천5백여평의 경내에 3개의 금당과 80m 높이의 거대한 탑이 위치한 웅장한 황룡사.

황용호PD는 "특수영상제작실의 전문적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된 가상현실 황룡사를 MC와 함께 들어가 황룡사 구층탑에 올라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오는 초파일에는 TV를 통해 사라진 천년고찰 황룡사를 참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

천태종 간부 1만명 단합법회

22일부터 전국사찰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는 22일 서울지역(삼룡사)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 9개지역에서 간부들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 간부단합법회를 개최한다.

1만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하는 이번 간부법회일정은 23일 인천 경기지역(용인 백인사), 24일 강원도지역(강릉 삼개사), 25일 대구 경북지역(안동 해동사), 26일 대전 충청지역(대전 광수사), 27일 광주 전라지역(광주 금광사), 29일 경남지역(고성 보성사), 30일 부산지역(부산 삼광사), 31일 제주도지역(제주 문강사)등 이다.

신임교원 22명 임용

진각종 회당학원이사회

진각종 회당학원(이사장 허일)은 지난달 27일 제 2백4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위덕대 손제석 총장등 신임교원 2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덕대 정교에 덕일정사(최정심인당)를 임명하고 30년 근속 심인중 정희영교감, 20년 근속 심인중 이상윤교장등 10명에게 근속표창을 수여키로 결의했다.

환경보존 실천법회

태고종, 27~28일 평택호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환경보존실천 수륙영산대법회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평택호 국민관광단지에서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북 종무원에서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불청 '마음의 전화' 개통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 부설 '마음의 전화' 개통식 및 기념법회가 지난 1일 혜초 태고종 총무원장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견지동 녹수청산에서 개최됐다.

청소년 및 이웃의 어려움을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함께 나누고자 설립된 '마음의 전화(747-5787~8)'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광주BBS 개국 1주년 불교광주방송은 개국 1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호남지역 방송포교사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지구촌 불교

'달라이라마 일생' 영화제작
美 허리우드 뜨거운 경쟁

허리우드 영화사들이 달라이 라마의 일생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경쟁에 들어갔다. 마틴스콜세이즈 감독과 E.T의 작가인 멜리사마티슨, 해리슨 포드가 한팀을 이루어 제작하게 되는 영화는 'Kundun'(달라이 라마의 어린시절 애칭)'. 영화제작의 지원을 위해 멜리사마티슨과 해리슨포드는 티벳문화 보존 캠페인에 참여하며 티벳지도자들을 만나는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중이다.

스미프필름에서도 브래드 피트와 영국의 제작자인 래인스미트가 한팀을 이뤄 달라이 라마 영화제작에 참여한다. 스미트필름에서는 어린시절 달라이 라마를 가르쳤던 핸리해러가 자서전적으로 쓴 책을 근거로 해서 제작하게 되는데 브래드피트가 핸리해러역을 맡았다.

"인터넷 바우사이트 들어가면 다마난다선사 만날 수 있다"

현대인들의 관심사와 의문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견해와 해답이 인터넷 '바우' 사이트 한 곳에 모아졌다.(http://www.inet.co.th/cyberclub/bow) 바우사이트는 주로 상좌부 불교를 주로 다루는 태국의 사이트로 상좌부 불교의 소개와 출판 뉴스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바우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현사회의 이슈로서는 세상의 기원, 불교에서의 여성의 위치, 결혼에 대한 불교적 입장, 윤회와 영혼, 종교적 범죄, 무신론 등으로 다마난다 선사의 '불교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저서에 근거해 불교적 답변을 제시했다.

특히 불교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해 다마난다 선사는 불교는 여성에게 종교적 자유를 부여한 급진적 가르침이며 결혼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의 지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염세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닌 현실주의 불교로써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사이트 안에는 버트란드 러셀 아인슈타인 등의 불교에 관한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

목탁소리

부처님 따르는 게 죄라니…

정성운 〈취재1부 기자〉

최근 서울 면목1동 수도암에서 법당에까지 들어와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말리다 이 사찰의 사무장 김진수씨(70)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법당에까지 들어와 전도활동을 한 기독교인 2명을 귀가조치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그들이 김씨를 밀어뜨려 숨지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직접적인 사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죽음까지 이르게 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기독교인들의 무차별한 '신도사냥'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가르침대로라면 기독교인들 외에는 모두 죄인이다. 불교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꿇려야 할 대상이다.

한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모양새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이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류의 지혜가 종교이며 도덕 윤리이며 상식이며 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독교의 논리대로라면 종교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갈등의 치유책은 없다. 따라서 기독교의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정의 평화 평등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인 스스로도 그들의 논리가 반사회적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종교갈등은 잠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죽음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당국은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법당에까지 들어가 전도활동을 한 당사자는 물론 그들이 속한 해당교단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방문선교 행위의 중단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대지 "急" 구함

전국일원 국도변 나대지와 준 농림지역을 급히 구하고 있으니 소유하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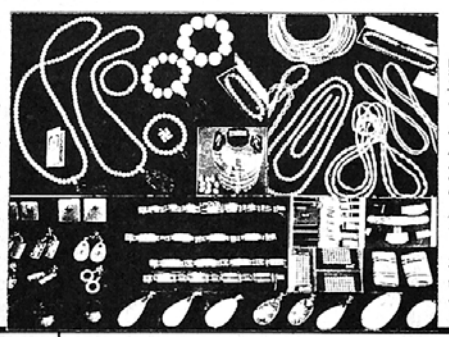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가 270 - 1 공영빌딩 308호
· 전화 : (02) 278 - 2924 ~ 5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듭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특허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뇌연증 90.9%, 심장질환자 92.9%, 미열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인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몸빈지 84%, 옥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한국일보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신문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초월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太虛月珠 編譯/크라운판 양장/ 380쪽/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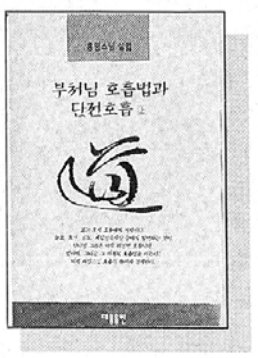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金日河(홍명) 스님 설법테이프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테이프 ① ②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전통호흡법을 소개하고 호흡과 기(氣)와 마음, 선정의 관계를 밝혔으며 전통적인 단전호흡, 기(氣)수행원리를 밝혔다. 테이프 ③은 전국의 초능력자 수십명을 취재 보도한 바 있는 영남일보 변성석 기자와 대담한 취재 형식의 내용이다. 테이프 ④는 법문을 듣는 수행 청중과 토론한 내용이다.



「전통적인 불교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기(氣)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통적인가?」

전국 불교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下편도 곧 나옵니다.

대웅불교음반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42-1 (053) 755-9537, 742-4017



◇인도 사르나트지역 힌두교도 5백명이 불교에 귀의하는 개종법회를 지난 1월31일 봉행했다.

인도 힌두교도 불교귀의 '붐'

한국사찰 녹야원 5백명 '개종법회'
신도회 결성 교리공부·수행법 배워

인도 사르나트 지역 힌두교도들이 대거 불교로 귀의하고 있다.

부처님이 성도이후 다섯 비구에게 첫 법륜(法輪)을 굴린 성지 사르나트에서는 지난 1월31일 5백명의 힌두교도가 불교로 귀의하는 개종법회가 열렸다. 이 지역 유일의 한국사찰 녹야원(주지·도웅)이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모신 가운데 봉행한 이 법회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많은 힌두교도들의 개종이 이뤄질 것이란 현지의 전언이다.

이날 개종을 한 힌두교도들은 작년부터 개종의사를 밝히며 녹야원등 사원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힌두교 전통에 의한 계급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자비와 평등을 가르치는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개종 이유.

부처님의 첫 전법지라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에서 거행된 힌두교도들의 개종법회는 청법의식으로 시작됐다. 청법의식은 새로 귀의하는 힌두교도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의 법문에 의지 하오니 법을 넓게 펴주십시오" 라고 법을 청하는 것이다. 이어 한국과 현지 스님들이 3귀의 5계수지 의식을 집전해 그들을 불제자로 거듭나게 했으며 이 의식에서 새로운 불자들은 이름뒤에 붙는 성을 일제히 '붓다'로 고쳤다. 이는 법명을 받는 의식과 같은 것이다.

이날 법회에서 청하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인류와 축생 미물에까지 골고루 비춰지는 햇살과 같이 평등하고 따뜻한 것"이라며 "불법에 의지한 이 마음을 잃지 말고 불자로서의 기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로 귀의한 힌두교도들은 신도회를 결성, 현지의 인도스님과 한국스님들을 모시고 녹야원에서 정기법회를 갖게 된다. 이들은 법회에서 불교의 교리와 수행법을 배우게 된다. 녹야원은 앞으로도 개종의사를 밝히는 힌두교도들을 불자로 받아들이며 대형 개종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힌두교도들의 불교귀의는 사르나트 지역뿐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는 현지의 한국스님들은 불교계가 국적을 넘어 보다 폭넓은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연태 기자

'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 결성

성직자양성대학원 '백지화' 추진…18일 범불교도대회

정부 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법타·조계종 총무부장)가 지난 6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결성됐다.

교육계 법조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조동종 본원종 등 19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도입을 백지화할 것을 청와대 및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하고 이와함께 중·고등학교 종교교과목 개설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대책위는 18일 오후3시 조계사에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책위 한상범교수(교수불자연합회 회장)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와 부당성에 대하여 주제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 서윤길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종석스님(승가대 교학처장)이 참가한다.

세미나에 이어 대책위는 조계사 경내에서 범불교적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전국 각 사암에 현수막을 걸어 불교계의 단합된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한편 새정치 국민회의 손세일 정책의장은 지난 9일 조계종 종회연수회에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가 특정종교 위주로 돼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성직자양성문제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자율적인 체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사찰등급 확정
본사 20개·말사 252개

조계종 사찰등급조정 중앙심사위원회(위원장 월주)는 지난 5일 총무원 4층에서 회의를 갖고 교구본사 20개, 말사 2백52개의 등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에서 불국사(1등급) 신흥사(6등급)가 상위등급을 받는등 각 사찰의 예결산에 따라 총 22개로 나뉘어 등급이 결정됐다. 사찰등급은 당해사찰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한편 용주사 직지사 통도사를 비롯 5개교구와 36개 직할사찰은 서류미비로 등급심사가 보류됐다.



◇정부 종교교육정책 불교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결성됐다.

"승가대 김포학사 계획대로 이전을"
수완스님, 공신력 우려

중앙승가대 전 법인사무처장 수완스님이 제3의 학사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안성부지의 문제점을 지적, 중앙승가대학 이전 불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수완스님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자청, "김포학사 이전이 무산이 될 경우 불교계의 공신력 추락은 물론 중앙승가대 정규대승격 등 이전불사 자체가 어렵게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불교지도자 연수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성오)는 부산불교 중·고등학생 지도위원회(회장 이종관) 주관하에 지난 1일 김천 직지사, 팔공산 동화사 등지에서 청소년 불교지도자 불교문화 탐방연수회를 가졌다.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회에서 참가자들은 조계종 포교원이 '96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추진중인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조직과 관련 △청소년 학술세미나 △교리 퀴즈대회 △불교청소년 캠프 △불교연극제 △청소년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청원

범국민추진위, 청와대에 고도보존법·문화특별법 촉구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를 비롯한 각계 대표 3백여명은 지난 11일 한국일보강당에서 대정부청원 및 성명대회를 개최하고 고속철도 경주통과안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고도로 후손에 보존되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세계적인 문화도시"라고 강조하고 △경주고도의 문화보존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고도보존법과 문화시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대회를 마친 후 이기영추진위원장 등 대표들은 청와대를 방문, 16만8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한 청원서와 성명서를 접수시켰다.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와 관련해 2백여단체가 가입한 추진위원회를 비롯 고고미술학 관련 17개 학술단체 및 문화재위원회, 경실련 등 24개 사회단체가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직진하지 경주를 통과하는 것은 이곳(경주)을 포함 울산·포항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다. 이 지역(경주) 주민도 대부분 당초 노선안 형산강노선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혀 경주통과안의 강행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장관은 "문화계 학계 불교계에서 반대의견도 있어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교 청소년의 해' 단체명
'불자연합 파라미타'로 확정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가 불교청소년의 해 단체명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5일 포교원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청소년의 해 단체명을 확정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청불련, Youth Buddhist Association Paramita)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의 청소년을 사찰단과 학교단 및 특수단체(근로청소년, 소년원, 장애인, 해외지부 소년)로 구분하여 중고등학생을 15개지부(광역시 지부 6개, 도지부 9개), 183지회를 조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라미타는 불교청소년의 해 문화사업으로 연합캠프(8일), 청소년 창작 찬불가 경연대회(6월),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연 2회), 외래퇴폐문화 추방캠페인(연 2회) 등을 전국규모 사업으로 하며 지역별 사업으로는 청소년 학술 세미나(5월), 서울 경주 남산 살리기 환경대회(10월), 청소년 후원의 밤(12월) 등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라미타는 지난 8일부터 단체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5월12일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서울 경기지부 발대식 및 문화 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일절 반일대회
부산대불청등 10개 단체

대불청 부산지구(회장 이상대)를 비롯 불교자비원, 종교인평화회의, 광복회 부산지부, 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들은 3·1절인 지난 1일 정오 부산역 광장에서 '3·1 민족자주정신 계승과 일본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일제잔재 청산 다짐과 일본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일장기가 그려진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진 뒤 초량동 일본영사관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벌였다.

대보름 방생법회
대구사원련 1만명 동참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지난 4일 경주 감포 나정 해수욕장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방생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80여개 회원사찰을 비롯 대구광역시신도회, 대구직장불교협의회, 대불련 대·경지부 등에 소속한 사부대중 만여명이 동참하여 자비방생의 깊은 의미를 되새겼다.

방생법회에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풍요제 및 달집점화가 진행됐다.

부불련 '종교편향 관련자 인책 요구'에
신한국당 부산지부 '대통령 건의' 답변

김대통령의 종교편향 정책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7인대책위원회(위원장 도봉)가 지난달 28일 청와대 비서실장, 국방장관, 안기부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 부산광역시지부(지부장 김정수)는 지난 5일 부불련 앞으로 보낸 회신을 통해, 관계자 인책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불교계 대책위원장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신은 또 교개위의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교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전면 백지화 내지 국회활동을 통해 적극저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학인스님 39명 배출
통도사 승가대학

통도사 승가대학(학장 목산)은 지난 3일 경내 감로당에서 제40회 졸업식을 갖고 대교과 13명, 사집과 12명(수료), 사미과 14명(수료) 등 총 39명의 학인스님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 승가대 강주 현근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 등이 참석했다.

부산실업인회 창립 5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7일 해운대 마리나센터에서 법어사 주지 성오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및 총회를 봉행했다.

마음 삼세를 알 수 있는 길

이 우주의 근본도 태양의 근본도 세상의 근본도 마음이다. 마음의 씨가 아니라면 어느 것 하나도 형성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깨우쳐 알 때에 삼세에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어 과거도 미래도 알 수 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대중불교 3월호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대구 삼영불교서점 / 이승환 회장 · 14
쇠북소리 · 선거와 거짓말 / 임헌영 · 10
귀담아 듣고 새겨볼 이야기
"최고급 승복 주문받음"이라 / 김정자 · 12
대중불교시사
서면 인터뷰 · 서석재/추미애/이문옥/조순환 · 48

진단 / 직장직능불교 현황 · 76
취재 · 조계종과 선학원 꼭 갈라서야 하나 · 82

기획 / 극에 달한 종교 편향
한계에 이른 종교갈등과 그 책임 · 38
종교편향, 대통령이 부추긴다 · 42

불교교리 산책 · 유식(2)상식과 유식 / 정승석 · 24
선화일편 · 금강산(金剛山)이야기 / 설산 · 34
우리 절의 신행, 이렇게 한다 · 고통에서 행복으로/ 현장 · 72
해외불교석학열전(3)
알렌 와츠(Alan Watts)/ 정희수 · 94

칼라화보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②봄의 향연 / 원성 · 53
구산선문(6)사굴산문 굴산사터 · 54
얼과 문화 · 함평 고막다리 · 60

첫 개인전 여는 석정스님 · 64
해외불교 · 몽골불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김선정 · 86
산천기행 답사기
-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즐거움 · 66

◀3월, 효림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중불교 산천기행'

남한강변의 폐사지와 절들

인연의 땅, 원력의 땅을 찾아가는 대중불교의 산천기행이 답사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배우고 불심을 키워 갈 마음이 젊은 모든 불자를 환영합니다.

■가는 곳 - 폐사지의 하일라이트 / 여주 고달사지, 원주 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돈사지, 신륵사, 구룡사 등의 폐사지와 절들
■기 간 - 1996년 3월 9~10일(1박 2일)
■모이는 곳 - 압구정동 현대 백화전 야외 주차장 (오후 3시 출발)
■참 가 비 - 55,000원(대학생 50,000원, 초중고생 40,000원)
■접 수 - 전화(02)752-7047, 764-1614

은행지로번호 국민은행 098-01-0236-597 김판동(산천기행)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꿰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건강백세 ⑥

귀지제거·고공비행 하품할 때 고막 손상안되게 주의를

귀

귀는 얼굴의 양옆으로 붙어 있어 앞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들게끔 설계 되어있는 감각기관이다. 훗날 안경을 쓰게될 줄 알고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적당한 위치에 존재한다. 귓바퀴가 앞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약간 약하게 수용되므로 소리만 듣고서도 방향감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짐작 되어진다. 귀는 해부학적으로 이개(耳介) 또는 외이륜(커耳輪=귓바퀴)에서 이도(耳道)를 거쳐 고막(鼓膜) 밖까지를 외이(外耳)라 한다. 고막 안에서부터 이소골(耳小骨), 이관(耳管), 전정창(前庭窓)까지를 중이(中耳)라 하며, 전정(前庭), 규관(規管), 와우(蝸牛=달팽이관) 및 와우신경(蝸牛神經) 연결부까지를 내이(內耳)라 한다. 특히 전정은 위치각기(位置覺器)로서 또 반규관(半規管)의 관대부(膨大部)는 운동각기(運動覺器)로서 제각기 평형감각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외부의 소리는 귓바퀴에서 모아져 음파로서 이도를 통하여 고막을 울려주게 된다. 고막을 통해서 받아진 진동은 중이속에 있는 이소골을 통해 내이의 와우에 전달 증폭되어 소리를 감각하는 청신경을 통해 뇌에 있는 청각중추로 전달된다. 또 골전도를 통해 직접 내이 골반규관으로 전달되어 가청기능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우선 고막까지의 통로가 소리 전달에 장애가 되지 않게 되어야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준 따귀를 맞는다든지 귀지를 후빌적에 당할 수 있는 직접손상, 폭발음, 공기과열음, 지나치게 크게 하품할 때의 압관절손상, 비행이나 고공상승 등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 평소 생활에서 주의와 올바른 기초 의학지식을 통해 예방과 안전에 유의하여 타고난 청력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목욕중에 물이 들어간 것을 철저히 닦아내지 않았거나 귀지 제거를 한다고 잘못 만져서 외이도에 상처가 나서 습진이 생기거나 이루(耳漏=분비물)가 나오며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윤 율 상 (한의학 박사)

소중한 만남 ②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 · 이준석

"저는 지칠대로 지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언니의 권유로 개종을 하고 절에 나가니 스님은 '아이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살아갈 아무런 의욕도 의미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다 놓아버리고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겐 또 다른 한 아이도 맡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었지요.

삶에 지칠대로 지친 저에게 오래 전부터 불교를 믿었던 언니는 아주 조심스레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해왔습니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없는 저로서는 다니던 성당을 외면하고 개종을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을 곳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된 어떤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과라면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 아이를 키울만한 부모를 찾다가 우리에게 내려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으로부터 아이를 키울만한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일단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말임에도 의심이 시원스레 풀리질 않고 왠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니가 쉽게 설명해주는 불교교리도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교를 알면 의문도 풀리려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일단 접어두고 언니를 따라 절에 가보았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는 좋았지만 신장님도 무섭게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익숙치 않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혼자서 또 그곳을 갔습니다.

절을 할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법당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했습니다. 부처님이 왠지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상처투성인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오랫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이 좋아서 마냥 혼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다가 오셨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무엇에 이끌리듯 거의 매일 절에 나갔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다른 사람을 따라 절을 하면서 무언지 모를 눈물을 한없이 한없이 흘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서러움에 겨워서, 딸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었겠지요. 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막연히 참회하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없이 실컷 울고나면 가슴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카타르시스였나 봅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일살을 넘겼습니다. 자신의 불만, 갈등, 고민 등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적응 상태는 계속되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짜증이 심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절에서 실시하는 교육강좌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뭔가 알고난 후에 비교 선택을 하더라도 그때가서 하리라 하며.

불교는 세속과는 멀고 접하기 어려운 철학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그렇게 가깝고도 깊숙히 불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삶의 지표였습니다.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의 힘찬 종교였습니다. 종교를 바꾸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하던 일을 떠올리며 미소지었습니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느라 열심으로 가르쳐주시는 감사스님들 덕분에 공부하는 매일매일이 신선한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 어려우니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결코 무명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으리라, 다짐도 하고 부처님 정법을 만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좋은 인연으로 한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세상을 향해 원망했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더 한말씀 한말씀이 의미심장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눈과 귀와 입과 몸으로 생각으로 인욕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이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㉗

♦ 'We ask (thee), Gotama, about a man that suffers loss ; having come to ask, Bhagavat, (tell us)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0)

"저희는 과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타마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Bhagavat : 'The winner is easily known, easily known (is also) the loser : he who loves Dhamma is the winner, he who hates Dhamma is the loser.' (91)

스승은 대답하셨다.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과멸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first loser ; tell (us) the second,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2)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과멸입니다. 스승님,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Wicked men are dear to him, he does not do anything that is dear to the good, he approves of the Dhamma of the wicked, -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3)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고 착한 사람을 멀리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은 과멸의 문이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second loser; tell us the third,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94)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과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a man that suffers loss 과멸(과배)한 사람
' cause 이유 (여기서는 의역해 '문 門')
' approve 좋다고 인정하다, 찬성하다
' wicked 사악한 나쁜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고행자 ㊽

타고르 作

제3장

(고행자는 산길 중근 돌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한 목동이 노래부르며 그 옆을 지나간다.)

(노래)

얼굴을 돌리지 말아요, 내 사랑
봄은 그 가슴을 송두리째 열고
꽃들은 어둠 속 비밀을 속삭이네.
숲 속 나무잎들의 속삭임은
한 밤의 흐느낌처럼 하늘을 질러
다가오느니,
오라 사랑이여,
내게 네 얼굴 모습을 보여주렴.

고행자 생각컨대, 언젠가 단 한 번 이와 비슷한 자네이 내 삶아온 지난 날 가운데 있었던 듯 하구나. 그때 해질녘의 작은 사랑과 음악으로 가득차 있었고 나는 누군가와 같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의 기억은 해질녘 져가는 별 속에 있구나. 그러나 내 어린 소녀는 어디 있을까, 눈물 가득히 고인 슬픈 그녀의 눈망울의 그 가련한 소녀는? 그녀의 오두막집 밖이 앉아 해질녘의 끝없는 외로움 가운데서 그 같은 별을 바라보며 거기 앉아 있을까?

(누더기 옷을 걸친 소녀가 들어온다.)

소 녀 당신은 누구십니까?

고행자 나는 고행자이다. 네 아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게 이야기 해다오. 아버지를 너는 사랑하나?

소 녀 그럼구 말구요. 저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돼계는 아빠밖에 없어요.



그림 · 심민섭

"사랑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소녀는 결코 죽을 수 없지"

고행자 알겠다. 네 작은 손을 좀 주어보련. 내 손 안에 잡고 있게 하라. 나의 이 뭉치한 손 안에…

소 녀 이제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고행자 어디로?

소 녀 숲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저를 만나지 못하면 영영 저를 잃어버릴 거예요.

제4장

(고행자가 마을 오솔길에 있다.)

고행자 나는 고행자의 행서를 버리자. 나의 지팡이를 꺾어버리고 나의 바루도 깨뜨려 버렸다. 시간의 바다를 건너가는 이 세상이라는 당당한 배여, 다시 한번 나를 거기 태워서 그 순례의 길에 끼게하라. 오, 어리석음이여, 그는 자기자신 홀로 해염처가는 것에서 안전함을 찾으려 원했고, 또한 자신의 개똥벌레의 희미한 빛을 의지하여 길을 찾아가려고 태양과 별빛들을 포기했었다. 새는 하늘에 날지만 공기가 없는 빈 하늘엔 날아가지 않고 끝내는 이 대지로 돌아온다. 나는 자유다. 나는 부정(否定)의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형태 가운데, 목적 가운데서 해방되었다. 유한함은 바로 진정한 무한이며 사랑은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한다.

형제여, 당신은 라구후의 딸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오?

아이엄마 라구후의 딸이라니요. 그녀는 죽었지요.

고행자 아냐, 그 소녀는 죽을 수 없어. 아니지 아냐!

아이엄마 허나 당신께 그 아이의 죽음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고행자여?

고행자 나에게 뿐만이 아니오. 이는 모든 우리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오.

아이엄마 나는 당신을 알 수 없군요.

고행자 그 소녀는 결코 죽을 수 없지….

생활 속의 불교 ⑥⑤

하루 밭 갈지 않겠거든 먹지도 말라

일 일부작 백일불식(一日不作百日不食) — 농부가 농사철에 하루 일을 쉬면 백일 동안의 양식을 잃는다는 뜻이다. 단 하루의 게으름·방일(放逸)로 적당 열흘 배를 곯아야 한다니 농사 일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야말로 정진을 이름이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 — 백장청규(百丈淸規)로 유명한 회해(懷海) 선사의 가르침이다. 수행자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하루 일하지 않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뜻이다. 서슬 시퍼런 칼날 같은 가르침이다.

부 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에 나섰다가 마침 농사 준비를 하던 한 바라문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나는 해마다 밭 갈고 씨 뿌려 내가 먹을 양식을 마련하고 있소. 당신도 스스로 씨 뿌려 먹을 양식을 구함이 옳지 않겠소?'

이 바라문은 부처님께 일일부작이거든 일일불식하시라고 종 주먹을 들이댄 셈이다.

부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간다. 나도 밭 갈고 씨 뿌려 먹을 것을 얻고 있노라.' 하셨다.

아 함경에 좀더 자세한 말씀의 기록이 있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
지혜는 내가 밭을 가는 모습
나는 신·구·의로
나날이 악업을 제어하나니
그것은 내가 밭에서 김 매는 것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니…(중략)
나는 이렇게 밭 갈고 이렇게 씨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두노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밭을 가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바라문의 밭은 땅이었지만 부처님의 밭은 중생의 마음이었음이다.



중 생은 나날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더욱이 생각은 찰나에도 수백 번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신·구·의 삼업을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쌓이고 쌓인다. 그 중에 또 악업은 얼마이랴?

부처님께서는 '나는 신·구·의로 나날이 악업을 제어하나니' 하셨다. 이는 쌓임이 아니라 덜어 냄이요, 덜어 냄일진대 어찌 감로의 열매가 없을 것인가. 그야말로 농부의 밭 가는 일, 씨 뿌리는 일을 빗대어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말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불 자라면 누구나 모름지기 마음의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실천해야 한다. 일상의 근로에서도 방일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마음의 밭을 가는 일에 있어서만은 단 하루, 아니 잠시의 방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활동 -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잠자는 일에서까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얻고자 할 때에 불이 붙기도 전에 문지르기를 그만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마 음 공부는 무슨 학문을 전공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 공부는 한시도 끊어질 수 없고 끊어져서도 안 되는 공부이다. 마음이란 풀어 놓으면 찰나간에도 수많은 업을 짓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날뛰는 원숭이에 비유했겠는가.

우 리는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고 수행하기 위해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 부지런히 마음 밭을 갈아 감로의 열매를 따자. 나를 회복하자. 대자유인이 되자.

일일부작이거든 일일불식하라.

협찬 : 윤 태 원